
2022년 경제전망

2021. 12. 20.

기 획 재 정 부

순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최근 경제동향 및 2021년 전망 | 1 |
| 1. 경제성장 | 1 |
| 2. 고용 | 9 |
| 3. 소비자물가 | 10 |
| II. 2022년 경제전망 | 12 |
| 1. 대외여건 점검 | 12 |
| (1) 세계경제 | 12 |
| (2) 국제원자재 가격 | 14 |
| (3) 국제금융시장 | 17 |
| 2. 국내경제 전망 | 18 |
| (1) 경제성장 | 18 |
| (2) 고용 | 29 |
| (3) 소비자물가 | 32 |
| III. 종합 평가 | 33 |
| [별첨] 2021~2022년 경제전망 요약 | 34 |

【 참고 순서 】

| | |
|---|----|
| [참고 1] 코로나 4차 확산기 내수 영향 점검 및 시사점 | 3 |
| [참고 2] 금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배경 및 평가 | 7 |
| [참고 3] '21년 경제 회복세 평가 및 과제 | 9 |
| [참고 4] 국제유가 수급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| 15 |
| [참고 5] 최근 건설경기 부진 원인 및 기조 전환 가능성 평가 | 21 |
| [참고 6] 경상성장을 상승 배경과 전망 및 평가 | 27 |
| [참고 7] 고용의 구조적 제약요인 점검 및 시사점 | 3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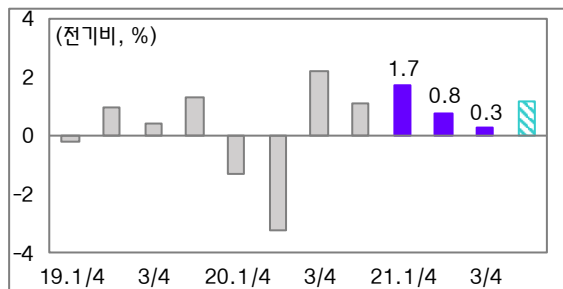
I. 최근 경제동향 및 2021년 전망

1 경제성장

① [성장] 수출·투자 호조 등으로 '21년 4.0% 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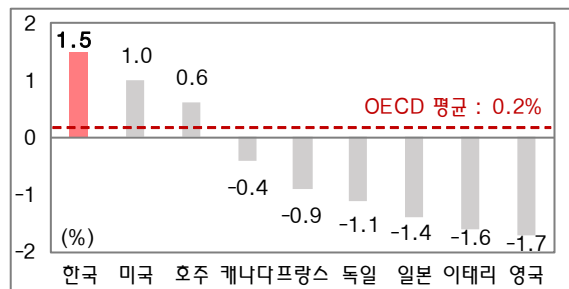
- (실질 GDP)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, 대내외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4.0% 성장 예상
 - 글로벌 경기·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·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,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
 - 3/4분기 성장은 코로나 4차 확산·공급망 차질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았으나, 4/4분기에는 내수 중심으로 반등 예상

GDP 성장률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G20 선진국 '20~'21년 평균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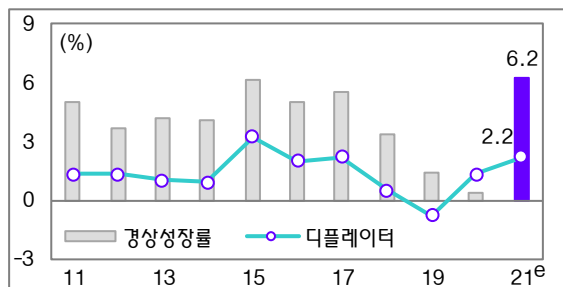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OECD('21.12월 전망), 한국은 정부 전망치

- (경상 GDP) 실질성장률 반등과 더불어,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6.2% 성장('10년<9.7%> 이후 최고치) 전망
 - 디플레이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·생산자 물가 상승, 반도체 등 수출가격 회복 등으로 2.2% 상승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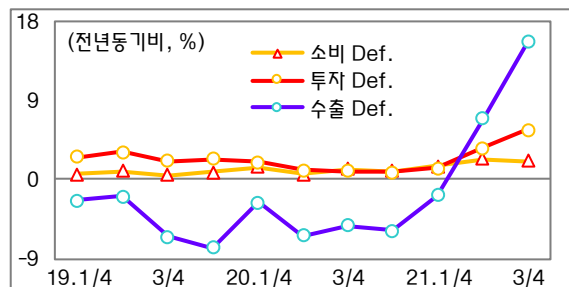
- 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0) 0.5 ('21.1/4)1.1 (2/4)2.5 (3/4)2.6 (10)3.2 (11)3.7
- * 생산자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0)△0.5 ('21.1/4)2.4 (2/4)6.4 (3/4)7.4 (10)8.9
- * D램 가격(전년동기비, %, 8Gb 고정가) : ('21.1/4)3.9 (2/4)15.0 (3/4)31.0 (10)30.2 (11)30.2

경상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



* 출처 : 한국은행 ('21년은 정부 전망치)

지출항목별 GDP 디플레이터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② [민간소비] 완만히 회복되면서 연간 3.5% 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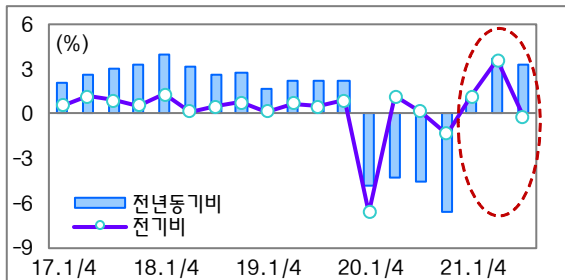
○ 상반기 빠르게 회복되던 민간소비가 코로나 4차 확산 등으로 3/4분기 중 주춤하였으나, 10월 이후 정책 효과 등으로 반등 전망

* 카드매출(전년동기비, %): ('21.6)7.6 (7)7.9 (8)7.2 (9)8.8 (10)13.4 (11)13.6 (12.1~15)18.0

* 주요 정책지원 : 상생국민지원금(11조원, 9.6일~), 상생소비지원금(7천억원, 10~11월), 소비쿠폰 재개(11.1일~), 코리아세일페스타(11.1~15일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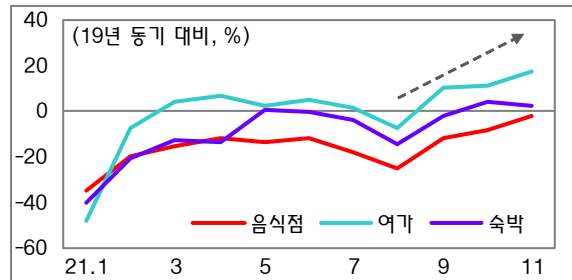
▪ 대면서비스 소비도 개선되고 있으나,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·확진자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

민간소비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대면서비스 카드매출액 추이



* 출처 : 여신금융협회

※ [참고 1] 코로나 4차 확산기 내수 영향 점검 및 시사점

③ [설비투자] IT 부문 등을 중심으로 연간 8.3% 증가 예상

○ 국내외 경기 회복·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IT 부문·신성장 산업(배터리·바이오 등)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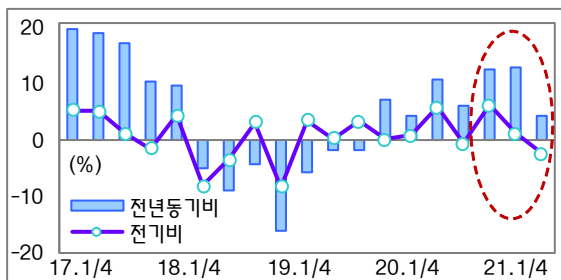
* 세계경제 전망('20→'21년, %): (성장률<IMF>)△3.1 → 5.9 (반도체 매출<WSTS>)6.8 → 25.6

*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(전년동기비, %): ('21.1/4)96.8 (2/4)43.4 (3/4)42.3 (10)43.5 (11)44.6

▪ 다만, 운송장비 투자의 경우 최근 들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자동차 생산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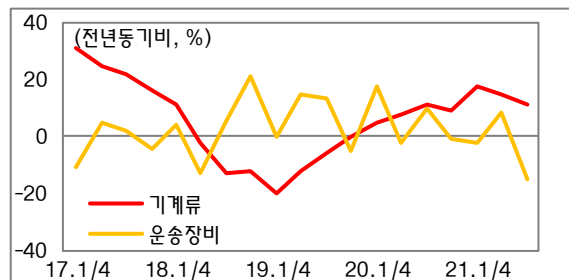
* 자동차 투자지수(전년동기비, %): ('21.1/4) 8.6 (2/4)△2.8 (3/4)△6.9 (10)△19.3

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부문별 설비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[참고 1] 코로나 4차 확산기 내수 영향 점검 및 시사점

① (내수 영향) 4차 확산기에는 과거 확산기와 비교시 확진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내수 영향은 크게 축소

※ 1~4차 확산기 시작 직후 1~2달 가량의 내수 영향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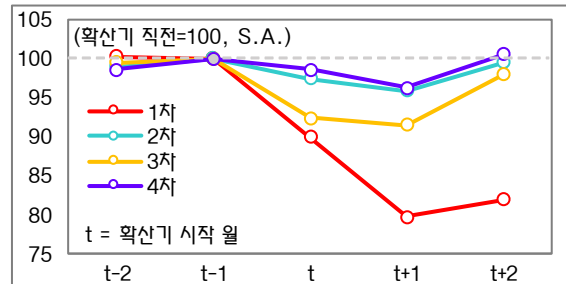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피해가 누적

확산기별 확진자수 및 민간소비 영향

| | 확진자수 (일평균) | 민간소비 (전기비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차 ('20.2.21~4.1) | 239명 | △6.6% <'20.1/4> |
| 2차 ('20.8.15~9.19) | 220명 | +0.2% <'20.3/4> |
| 3차 ('20.11.12~12.31) | 677명 | △1.3% <'20.4/4> |
| 4차 ('21.7.7~9.30) | 1,756명 | △0.2% <'21.3/4> |

* 출처 : Ourworldindata, 한국은행

확산기별 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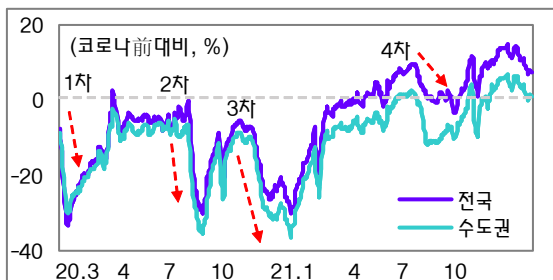
② (영향 축소 원인) 경제주체들의 적응 행태, 온라인 소비 증가, 대면서비스 외 소비 증가 등에 기인

① (경제주체 적응 행태) 반복된 확산세 경험, 백신접종 확대, 낮은 치명률 등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민감도 저하

* 백신접종률(% , 기말) : [1차] ('21.7)38.2 (8)57.4 (9)76.9 (10)80.3 (11)83.1 (12.16)84.1
[완료] ('21.7)14.2 (8)31.0 (9)50.3 (10)75.6 (11)80.1 (12.16)8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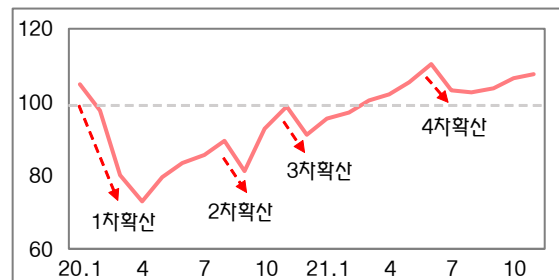
▪ 그 결과, 과거 확산기에 비해 이동성 위축이 크지 않았고, 소비자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았지만 기준선을 지속 상회

우리나라 이동성지수 추이(7일 이동평균)



* 출처 : Google

소비자심리지수(CSI)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② (온라인 소비 증가)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 문화가 중장년층 등 쉐 세대로 확산되며 오프라인 소비 위축을 보완

* 온라인 소비 비중(%) : ('19)21.5 ('20)26.7 ('21.1/4)29.3 (2/4)28.1 (3/4)28.1 (10)28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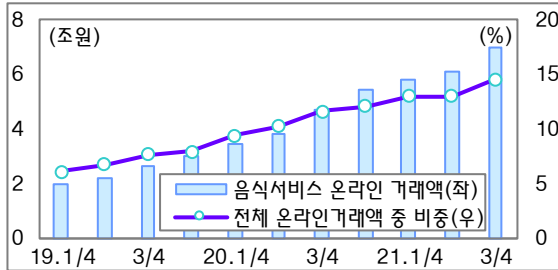
* 연령대별 '20년 온라인 카드결제액 증가율(% , 하나금융연구소)

: (10대) 20 (20대) 25 (30대) 27 (40대) 42 (50대) 50 (60대 이상) 55

- 특히, 배달앱 활성화 등으로 음식 배달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음식업 소비 위축이 과거 확산기 대비 크게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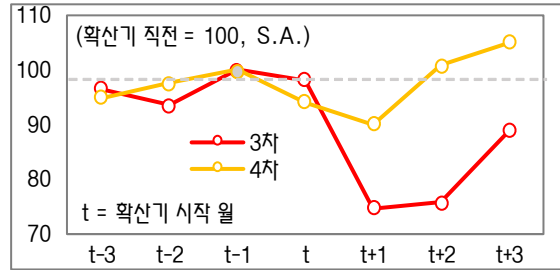
* 음식서비스 온라인거래액(조원) : ('19.4/4) 3.0 → ('20.2/4) 3.8 → (4/4) 5.4 → ('21.3/4) 7.0

음식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3차/4차 확산기 전후 음식업 생산지수



* 출처 : 통계청

㉓ (여타부문 소비 증가) 가전 등 내구재, 의류 등 준내구재, 금융·보건 등 비대면서비스 소비가 양호한 증가 흐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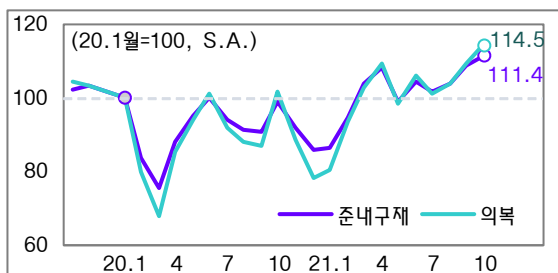
- 가전의 경우 7월 폭염 등으로 계절가전 구입 수요가 크게 늘고, 재택근무·온라인교육 확대 등도 수요 증가를 뒷받침

* 일평균 기온 : ('20.7월) 22.7°C → ('21.7월) 26.0°C <전국 폭염일수 '73년 이후 상위 5위>

* LG전자 : '21.3/4분기 매출액(18.8조원, 전년동기대비 +22%)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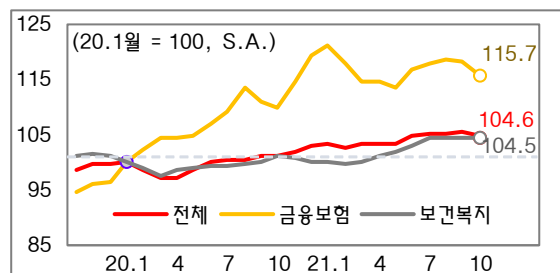
- 의류 등 준내구재는 그간 외출 자제 등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면서 최근 위기 前 수준을 넘어 큰 폭 증가
- 백신접종 확대, 주식거래 증가 등으로 보건·금융서비스 소비도 증가

준내구재 판매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비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㉔ (시사점) 과거 확산기 대비 경제적 영향이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나, 부문간 회복 속도의 격차 지속

* 위기 직전('20.1월 = 100) 대비 회복 수준('21.10월 산업활동동향 기준)

: (내구재) 116.6 (준내구재) 111.4 (비내구재) 101.7 (서비스) 101.5 [(대면서비스) 92.8]

-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할 필요
- 아울러,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,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

4 [건설투자]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연간 0.9% 감소 예상

○ 건설투자는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 및 기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조업차질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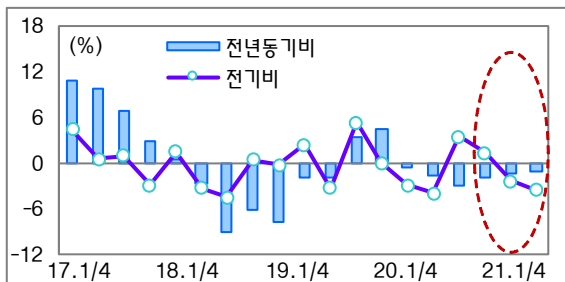
* 철근가격(만원/톤) : ('21.1/4)74.8<전년동월비 27.1%> (2/4)102.9<60.0%> (3/4)113.2 <75.2%>

* 기상여건 : ① 2/4분기 월평균 강수일수 : 10.8일(평년<최근 5년 평균> 8.7일)

② 7월 폭염일수 : 8.1일(평년 5.9일) ③ 8월 강수일수 : 16.4일(평년 12.5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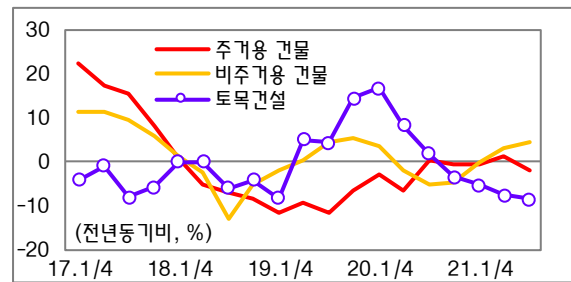
▪ 건물건설의 경우 비주거용은 증가하였으나 주거용 건설이 감소하였고, 토목건설도 공사 지연 등으로 큰 폭 감소

건설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형태별 건설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5 [지식재산생산물투자] R&D 투자 확대 등으로 3.9% 증가 예상

○ R&D 투자는 기업실적 호조, 정부의 신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 흐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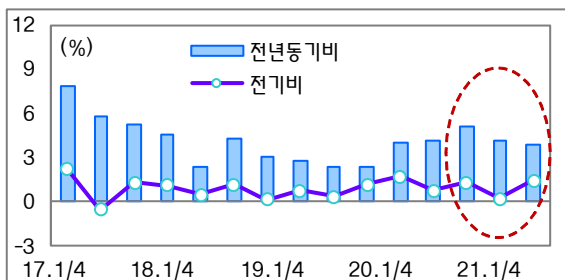
* R&D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0)24.2 → ('21)27.4 <전년대비 +3.2조원>

* R&D 투자(전년대비, %) : ('20) 4.6 ('21.1/4) 5.5 (2/4) 4.2 (3/4) 2.4

○ 소프트웨어 부문도 비대면 활동 증가,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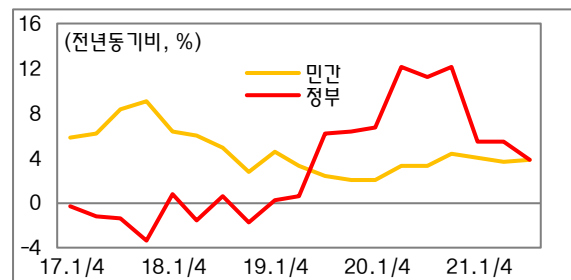
*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(전년대비, %) : ('20) 2.4 ('21.1/4) 1.0 (2/4) 2.9 (3/4) 8.2

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6 [수출입] 연간 통관수출 25.5%, 수입 31.0% 증가 전망

- (수출) 글로벌 경기·교역 개선 및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금년 역대 최고액(6,430억불 <중전 최고 '18년 6,049억불>) 달성 예상

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1.1/4)12.5 (2/4)42.1 (3/4)26.5 (10)24.2 (11)32.0 (12.1~10) 20.4

- 반도체·자동차·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·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이 전반적으로 큰 폭 증가

* '21.1~1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
(반도체)28.4 <시스템반도체 31.5> (자동차)25.0 <친환경차 44.9> (석유제품)55.8
(석유화학)57.0 (무선통신)25.2 (철강)35.8 (바이오헬스)18.5 (이차전지)16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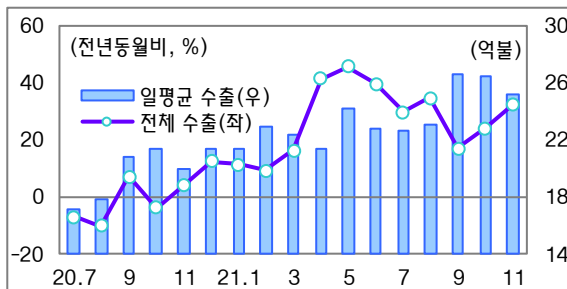
- 美·中·EU 등 주요 교역국 포함 모든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

* '21.1~11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
(美)30.1 (中)23.1 (EU)34.7 (아세안)22.2 (日)20.2 (중남미)36.2 (인도)33.9

- (수입) 국제유가 상승·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·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, 내수 회복 등으로 소비재 수입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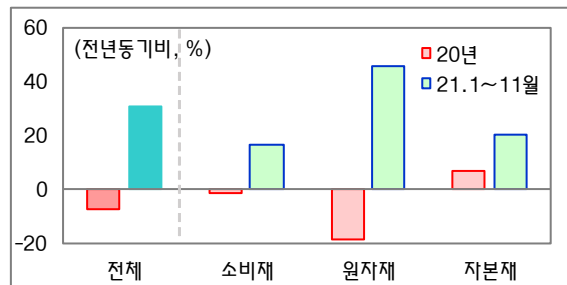
* 두바이유(\$/b, <전년동기비>): ('21.1/4)60.3<+19.5%> (2/4)67.1<+118.2%> (3/4)71.7<+67.2%>

수출 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추이



* 출처 : 무역협회

성질별 수입(통관)



* 출처 : 관세청

※ 우리 수출·수입이 글로벌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규모 순위 상승 전망
('20년 9위 → '21년 8위)

- (경상수지) 연간 910억불 흑자 예상 ('20년보다 157억불 확대)

-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,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'20년 대비 흑자 규모 축소 전망

* 상품수지(억불): ('20) 820 → ('21^e) 770 [1~10월 646]

- 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운송수입 증가 등으로 '20년에 비해 적자폭 축소 예상

* 서비스수지(억불): ('20)△162 → ('21^e)△20 [1~10월 △14]

* 해상운임지수(SCFI): ('20)1,265 ('21.1)2,872 (10)4,600 (11)4,562 (12.2주)4,811

[참고 2] 금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배경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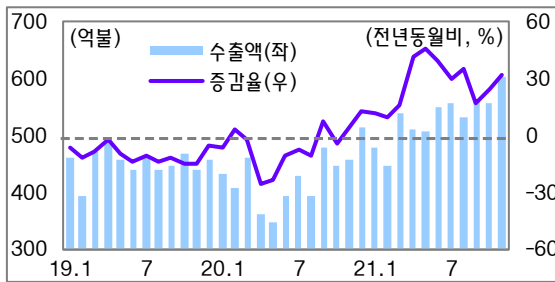
① **(동향)** 올해 수출액은 종전 최대치인 '18년 수준(6,049억불)을 크게 넘어서면서 수출 역사상 최대 실적 달성(6,430억불 수준 전망)

- * 금년 수출액은 12.13일 기준으로 '18년 6,049억불을 既 상회
- * '21.11월 수출액(604.1억불)은 월간 기준 최초로 600억불 돌파<'13.10월 500억불 진입>

○ 수출 증가 과정에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, 단가도 큰 폭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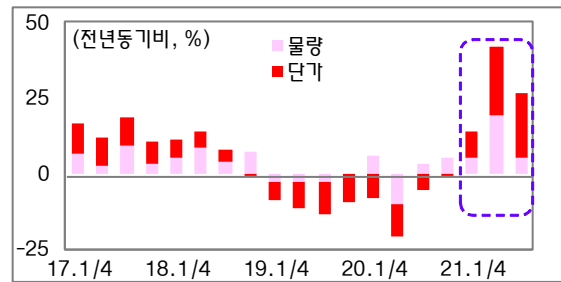
- * '21.1~10월 수출금액(한은) 증가율 : 26.9% [물량 증가율: 8.8% / 단가 상승률: 18.0%]

통관수출 추이



* 출처 : 무역협회

수출 물량·단가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② **(호조 배경)**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, 유망 신산업 수출 성장,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,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

① **(주력산업)**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·물류대란 등에도 불구하고,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에 신속 대응하면서 높은 성장세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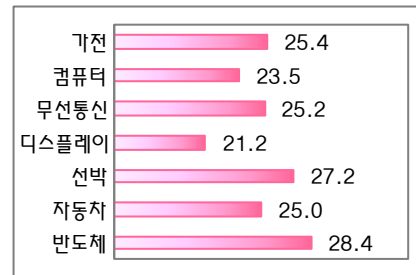
- * 해상운임지수(SCFI) : ('20) 1,265 ('21.1) 2,872 (10) 4,600 (11) 4,562 (12.2주) 4,811

- 특히,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의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

주력산업 글로벌 수출 경쟁력 현황

| | |
|-------|---|
| 반도체 | ✓ 메모리 시장점유율 1위 유지 (1~9월, 58.9%) |
| 자동차 | ✓ 5대 수출국 지위 유지 (1~9월, 獨-日-美-멕시코-韓) |
| 조선 | ✓ LNG선(점유율 93%)·친환경선박(64%) 수주 1위(1~11월) |
| 디스플레이 | ✓ OLED 시장점유율 1위(1~9월, 83.1%) |
| 스마트폰 | ✓ 시장점유율 1위로 부상('20.4/4 2위 → '21.1/4이후 1위) |

수출 증가율(1~11월, %)



② **(신산업)** 미래 성장동력인 시스템반도체·친환경차·바이오헬스·이차전지·화장품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큰 폭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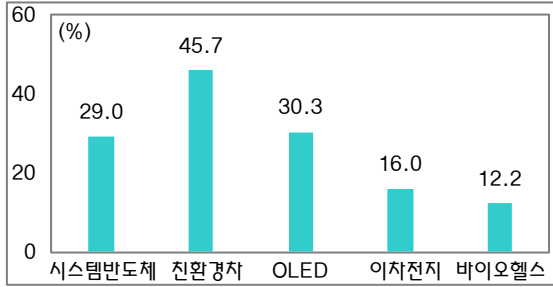
- * '21.1~11월 유망 신산업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
: (시스템반도체) 31.5 (친환경차) 44.9 (바이오헬스) 18.5 (이차전지) 16.8 (화장품) 23.5

- 화장품의 경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수출 5위국에 진입(국제무역센터 통계)

* 화장품 수출액(억불) : ('18) 62.7 ('19) 65.4 ('20) 75.6 ('21.1~11월) 8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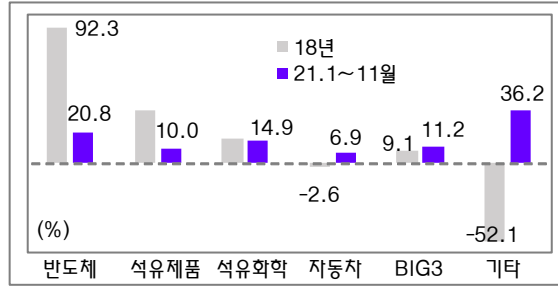
- ※ '18년의 경우 반도체 호황·유가상승 등으로 반도체·석유제품 등이 수출 호조를 견인했던 반면, 올해는 주력품목 및 신성장품목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 <'18년 반도체 부문의 수출 증가 기여율 : 92.3%>

'21년 유망 신산업 수출 증가율 전망



*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

수출 증가에 대한 품목별 기여율



* 출처 : 무역협회

③ (고부가가치화) 주력 품목 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도 수출 단가 상승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

- 특히, '21년 수출단가는 디스플레이(+38.3%)·자동차(+17.2%)·선박(+10.2%) 등을 중심으로 '18년 대비 큰 폭 상승(+12.6%)

* 디스플레이 : OLED 수출 비중 확대 [('18) 45% → ('21) 67%]
 자동차 : 전기차 수출 비중 확대 [('18) 4% → ('21) 15%]
 선박 : LNG선 수출 증가 [('18) 23척 → ('21) 43척]

④ (시장 다변화) 신남방·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사상 최초로 8개월 연속 9대 주요지역(전체 수출의 83%) 수출이 모두 증가

* '21.1~11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中) 23.1 (美) 30.1 (EU) 34.7 (아세안) 22.2 (日) 20.2 (중남미) 36.2 (인도) 33.9 (중동) 3.1 (CIS) 18.5

③ (평가) 금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액·무역규모를 갱신하는 한편, 최단기(299일) 무역 1조불을 돌파하며 “무역 트리플크라운” 달성

* '21년 수출 전망 : 6,430억불 [종전 최대치 '18년 6,049억불]
 * '21년 무역규모 전망 : 1조 2,555억불 [종전 최대치 '18년 1조 1,401억불]

-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순위는 9년만에 8위로 도약('20년 9위)하면서 무역강국으로서의 입지 강화(수출은 작년과 동일한 7위 유지)

⇒ 역대급 수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되는 물류문제 해결 등 현장애로 해소, 시장 다변화 등의 정책노력 강화 필요

① 취업자수 35만명 증가 전망 → 작년 충격(△22만명)을 큰 폭 상회

- (업종별) 대면서비스업 고용 부진 완화, 비대면 업종 일자리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 흐름 지속

* 취업자수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1.1/4)△38.0 (2/4)61.8 (3/4)57.7 (10)65.2 (11)55.3

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- 숙박음식업 | △20.9 | 2.6 | △0.4 | 2.2 | △8.6 |
| - 교육서비스업 | △4.2 | 4.3 | 5.9 | 10.8 | 10.5 |
| - 정보통신업 | 0.4 | 4.2 | 7.2 | 10.3 | 10.6 |

- (지위별)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, 일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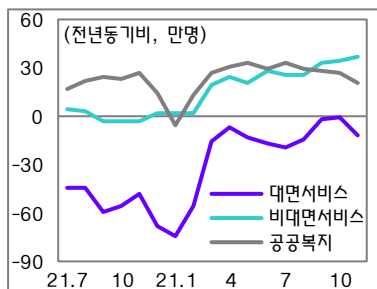
* '21.1~11월 평균(전년비, 만명) : (상용직)34.0 (일용직)△9.8 (고용원有 자영업자)△7.6

- (연령별) 취업자수는 인구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, 청년·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

* '21.1~11월 평균(전년비, 만명) : (청년)10.1 (30대)△11.6 (40대)△3.9 (50대)5.2 (60대+)33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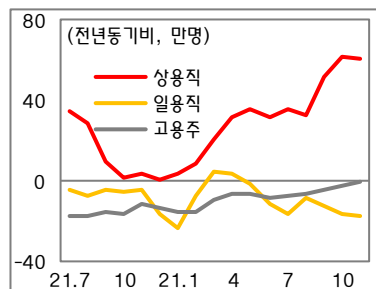
- 특히, 청년층은 인구 감소(1~11월 평균 △13.9만명)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(1~11월 평균 +10.1만명)

산업별 취업자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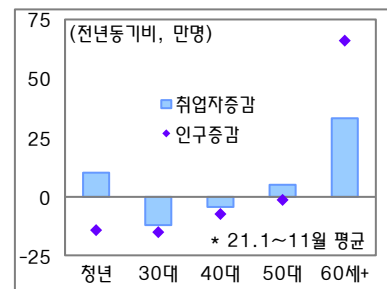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통계청

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



* 출처 : 통계청

연령대별 취업자 증감



* 출처 : 통계청

② 고용률(15~64세)이 큰 폭 상승하고, 실업률은 하락 전망

- 구직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며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청년 실업률은 큰 폭 하락

* '20→'21년 고용지표(% , 1~11월 기준) : [경제활동참가율<15세 이상>] 62.6→62.8
 [고용률] (청년)42.3→44.1 (30대)75.3→75.2 (40대)77.1→77.3 (50대)74.4→75.0 (60대+)42.6→43.1
 [실업률] (청년) 9.0→7.9 (30대) 3.5→3.3 (40대) 2.5→2.4 (50대) 2.9→2.7 (60대+) 3.5→3.6

◇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상방압력 확대 등으로 2.4% 상승 전망

※ 현행 소비자물가(2015=100) 기준 전망치,
올해 12월 및 연간 실적(12.31일)은 기준년 개편 후 신계열(2020=100) 기준 공표 예정

○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, 우리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오름폭 확대

* '21년 물가상승률 전망(% , OECD<'21.12>) : (韓) 2.4 (美) 3.9 (加) 3.3 (獨) 3.1 (G20) 3.8

* 두바이유(\$/b, <전년동기비>) : ('21.1/4)60.3<+19.5%> (2/4)67.1<+118.2%> (3/4)71.7<+67.2%>

* 비철금속 가격지수(LMEX) : ('21.1)3,505 (3)3,834 (6)4,181 (9)4,293 (10)4,469 (11)4,371

▪ 국제유가 상승·농축수산물 수급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·농축수산물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견인

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1.1/4) 1.1 (2/4) 2.5 (3/4) 2.6 (10) 3.2 (11) 3.7

- 농축수산물 물가 13.3 11.9 6.9 0.2 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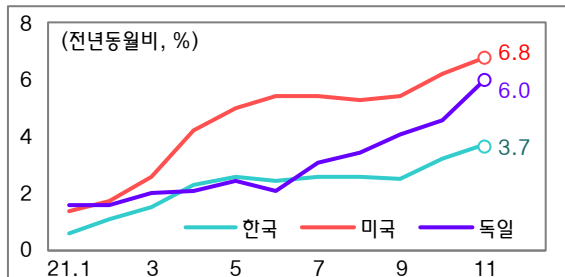
- 석유류 물가 △4.6 18.7 21.1 27.3 35.5

▪ '19~'20년 저물가에 따른 기저 영향, 수요 회복에 따른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등도 상방압력으로 작용

* CPI 상승률(%) : ('15) 0.7 ('16) 1.0 ('17) 1.9 ('18) 1.5 ('19) 0.4 ('20) 0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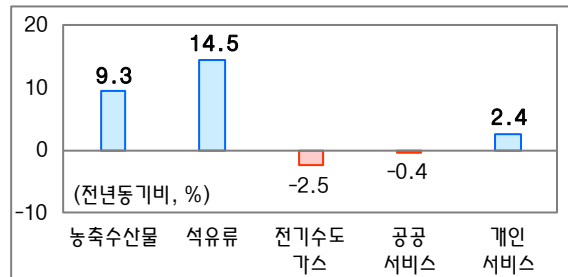
※ '21.1~11월 CPI 상승률 : 2.3% [기여도(%p) : (농축수산물)0.8 (석유류)0.6 (개인서비스)0.8]

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'21.1~11월 품목별 상승률



* 출처 : 통계청

❖ [참고]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주요국 생산자물가도 큰 폭 상승
(생산자물가는 1~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)

생산자물가(전년동월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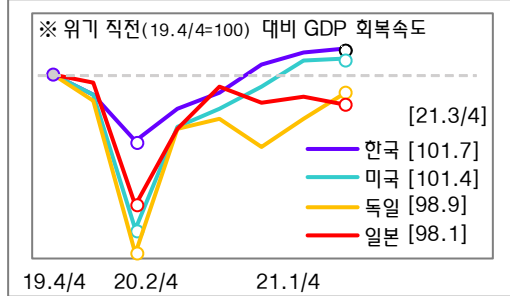
| | '21.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
|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미국 | 1.6 | 3.0 | 4.1 | 6.5 | 7.0 | 7.6 | 7.8 | 8.3 | 8.6 | 8.6 |
| 유로 | 0.4 | 1.5 | 4.4 | 7.6 | 9.6 | 10.3 | 12.4 | 13.4 | 16.1 | 21.9 |
| 중국 | 0.3 | 1.7 | 4.4 | 6.8 | 9.0 | 8.8 | 9.0 | 9.5 | 10.7 | 13.5 |
| 한국 | 0.9 | 2.1 | 4.1 | 6.0 | 6.6 | 6.6 | 7.4 | 7.4 | 7.6 | 8.9 |

[참고 3] '21년 경제 회복세 평가 및 과제

□ (평가)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, 수출·내수·고용도 당초 예상보다 뚜렷한 개선 흐름 시현

▶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(1/4분기) 위기前 수준 회복, 빠른 회복세 지속 중

GDP



✓ '20~'21 평균 성장률 : G20 선진국 중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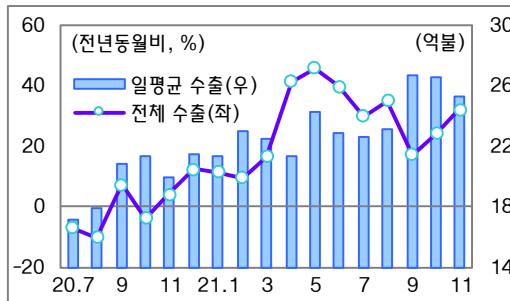
* (韓) 1.5% (美) 1.0% (濠) 0.6%
(加)△0.4% (佛)△0.9% (獨)△1.1%
(日)△1.4% (伊)△1.6% (英)△1.7%

✓ 경제규모 글로벌 Top10 위상 공고화

* IMF 전망(21.10): '23년까지 10위 유지<'19년 12위>

▶ 가파른 증가세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가능 → 기준점 업그레이드

수출



✓ 수출액 6,430억불 전망

< 월 수출액 최초 600억불 돌파(21.11월) >

* 종전 최대치 : '18년 6,049억불

✓ 무역규모 1조 2,555억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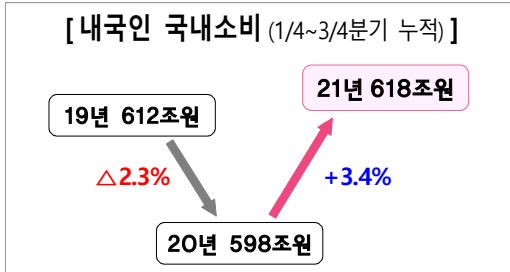
< 글로벌 순위 : 9위 → 8위로 상승 예상 >

* 종전 최대치 : '18년 1조 1,401억불

* '20년 8위 영국이 금년 10위로 하락

▶ 내국인 국내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→ 위기前 수준 회복

내수



✓ 내국인 국내소비('21.1/4~3/4분기 누적) 정책효과 등으로 '19년 수준 큰 폭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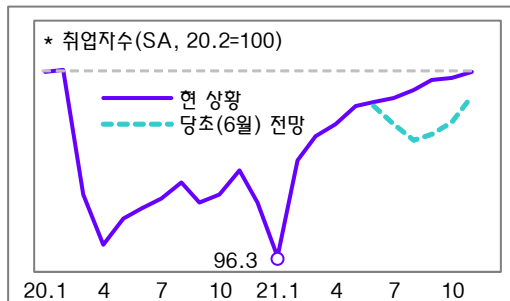
✓ 민간소비(외국인 국내소비 포함)

당초 예상(+2.8%) 큰 폭 상회 전망(+3.5%)

< 다만, 19년 수준에는 미달('20년 △5.0%) >

▶ 예상보다 가파른 회복세로 작년 충격(△22만명)을 큰 폭 상회(+35만명)

고용



✓ 월 취업자수 위기前 수준을 거의 회복

< '21.11월 취업자수 : '20.2월 대비 △0.5만명 >

* 위기前 대비 회복정도('20.2월=100)

(美<'21.11>) 97.8 (日<'21.10>) 98.3

(加<'21.11>) 101.0 (獨<'21.10>) 99.2

✓ 연간 취업자 증가 전망

: (6월 하경정)+25 → (현재)+35만명

□ (과제) 아직 위기前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대면서비스업 회복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할 필요

* 위기 직전('20.1월 = 100) 대비 회복 수준('21.10월 산업활동동향 기준)

: (제조업 생산) 105.2 (소매판매) 107.5 (서비스업 생산) 101.5 [(대면서비스업) 92.8]

Ⅱ. 2022년 경제전망

1. 대외여건 점검

1 세계경제

① [성장] 선진국·신흥국 모두 회복 흐름 지속 전망

- (미국)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, 고용·소비 개선 흐름,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견조한 경기 회복세 견인 예상
 - * 美 실업률(%) : ('21.1/4) 6.2 (2/4) 5.9 (3/4) 5.1 (10) 4.6 (11) 4.2
 - * 1.2조불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 확정('21.11월), 1.8조불 수준 사회복지법안 의회 논의 중
- (유로존) 경제활동 정상화, 경제회복기금 집행, 디지털·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개선 흐름 지속 전망
 - * 8,000억유로('21~'26년) 경제회복기금 중 '22년 보조금 1,435/대출 1,948억유로 집행 예정
- (일본) 코로나 확산세·방역조치 완화, 신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을 바탕으로 소비·투자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
 - * 가계소득 확충·피해회복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(55.7조엔)의 지원책 발표('21.11.19일)
 - * 日 소매판매(전기비, %) : ('21.1/4) 0.4 (2/4)△2.1 (3/4) 1.2 (10월) 1.0
- (중국) 공급망 차질·기업규제 강화 등이 성장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, '21년 보다 둔화된 5%대 성장 흐름 전망
 - * 中 정부는 "공동부유"를 목표로 부동산·빅테크·사교육·문화산업 등 규제강화
 - * 中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1.1/4) 48.8 (2/4) 30.7 (3/4) 24.4 (10) 27.1 (11) 22.0
- (신흥국) 백신보급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, 회복 속도는 국가별 코로나 통제 정도·정책여력 등에 따라 차별화

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

| (단위: %) | 실적 | | | '21년<전망> | | '22년<전망>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| '21.1/4 | 2/4 | 3/4 | IMF | OECD | IMF | OECD |
| 세계경제 성장률 | - | - | - | 5.9 | 5.6 | 4.9 | 4.5 |
| ▶ 선진국 | - | - | - | 5.2 | - | 4.5 | - |
| - 미 국(전기비연율) | 6.3 | 6.7 | 2.1 | 6.0 | 5.6 | 5.2 | 3.7 |
| - 유 로(전기비) | △0.2 | 2.2 | 2.2 | 5.0 | 5.2 | 4.3 | 4.3 |
| - 일 본(전기비) | △0.7 | 0.5 | △0.9 | 2.4 | 1.8 | 3.2 | 3.4 |
| ▶ 신흥국 | - | - | - | 6.4 | - | 5.1 | - |
| - 중 국(전년동기비) | 18.3 | 7.9 | 4.9 | 8.0 | 8.1 | 5.6 | 5.1 |
| - 인 도(전년동기비) | 1.6 | 20.1 | 8.4 | 9.5 | 9.4 | 8.5 | 8.1 |

② [교역·물가] 교역 증가 흐름이 지속되고, 물가 상승세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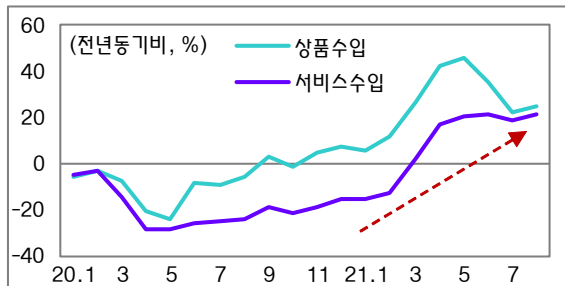
- (교역) 생산·물류 차질 완화 등으로 상품 교역이 증가하고, 서비스업 교역도 국가간 이동 재개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

* 세계교역량 증가율(% , WTO<'21.10>) : ('19) 0.1 ('20)△5.3 ('21^e)10.8 ('22^e)4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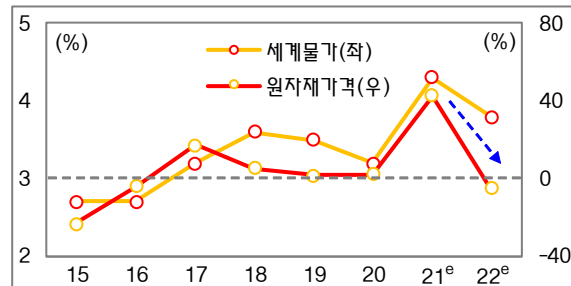
* 글로벌 항공승객수(억명, IATA<'21.10>) : ('19) 45.4 ('20) 18.1 ('21^e) 22.8 ('22^e) 34.3

- (물가)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는 안정될 전망이나, 공급망 차질 장기화·오미크론 확산 등 불확실성도 상존

상품·서비스 교역량 추이



세계물가·원자재 가격 추이



* 출처 : WTO(무역규모 상위 10개국<홍콩 제외> 합산) * 출처 : IMF

③ [리스크 요인]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확대 예상

- ① 국가별 백신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,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

* 백신접종 완료율(% , 12.15일) : (韓) 81.5 (日) 77.9 (EU) 68.3 (美) 60.6 (아프리카) 8.3

* 오미크론 77개국 확산(12.15일) → 세계경제 성장 둔화·물가 상승 위협(무디스·피치 등)

- ② 글로벌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공급차질 및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

-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(greenflation) 압력이 가중될 우려

- ③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불안 등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,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

* 12월 FOMC(12.16) : 1월부터 테이퍼링 가속 결정('22.1월부터 자산매입 축소규모 확대), 테이퍼링 종료-금리인상 간 시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
- ④ 중국 경제는 정부의 규제강화, 기업 디폴트 리스크, 미·중 무역갈등 재개 등으로 성장 둔화 흐름이 가속화될 우려

2

국제원자재 가격

① [국제유가] '22년 평균 73\$/B 예상 (두바이유 기준)

-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세 확대, OPEC+의 감산규모 점진적 축소 등을 감안할 때, 연간 평균치로는 올해 보다 소폭 상승 전망

* '22년 글로벌 원유수요는 코로나 위기 前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
- 원유수요(백만배럴/일, EIA) : ('19) 100.3 ('20) 91.8 ('21^e) 96.9 ('22^e) 100.4

* OPEC+ 감산규모 : '21.7월(576만배럴/일) → '21.8~'22.9월까지 매월 40만배럴/일씩 축소

-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유가 하락세 예상

※ [참고 3] 국제유가 수급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

주요 기관들의 '22년 국제유가 전망 (\$/B, 기간평균)

| 기관 (전망시점) | 유종 | '19 | '20 | '21 ^e | | '22 ^e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연간 | 4/4 | 연간 | 1/4 | 2/4 | 3/4 | 4/4 |
| CERA ('21.11월) | Dubai | 64 | 42 | 70 | 82 | 76 | 77 | 73 | 79 | 75 |
| EIA ('21.12월) | | | | 72 | 82 | 72 | 78 | 73 | 70 | 67 |
| CERA ('21.11월) | Brent | 64 | 43 | 72 | 84 | 77 | 79 | 75 | 80 | 76 |
| OXFORD ('21.11월) | | | | 72 | 85 | 67 | 77 | 67 | 63 | 61 |

② [국제곡물·비철금속] 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

- ① (국제곡물) 올해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영향, 미국 등 주요 생산국들의 작황 개선 등으로 오름폭 둔화 전망

* '22년 글로벌 작물 수확량이 대체로 '21년 대비 증가 전망<농촌경제연구원, 11.30일>
①옥수수(1,122 → 1,206백만톤), ②대두(365 → 384백만톤), ③쌀(509 → 515백만톤) 등

- ② (비철금속)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*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생산량 회복 등으로 가격 상승세 둔화 예상

* (美) '22년부터 향후 10년간 도로·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총 1.2조불 투자 예정

* (EU) '22~'27년 중 3,000억 유로 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<'21.12월>

국제곡물·비철금속 가격 상승률 전망 (%)

| | 옥수수 | 밀 | 대두 | 알루미늄 | 구리 | 니켈 | 아연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'20년 | △2.7 | 13.6 | 7.0 | △5.0 | 2.7 | △0.9 | △11.1 |
| '21년 ^e | 62.5 | 37.8 | 47.8 | 40.7 | 47.7 | 32.0 | 28.2 |
| '22년 ^e | △1.0 | 8.9 | 6.0 | 6.0 | △0.6 | 3.8 | 2.4 |

* 출처 : IMF('21.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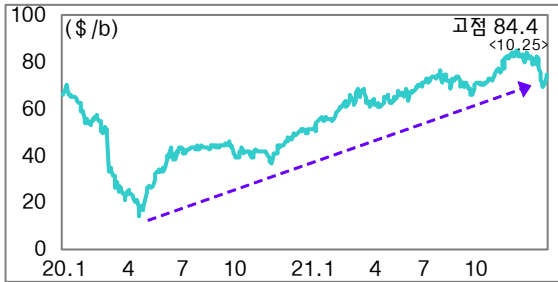
[참고 4] 국제유가 수급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

① (동향) 국제유가는 금년 들어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, 10월 이후 수급여건 불안 등으로 70~80\$대 수준에서 등락 중

* 두바이유(\$/b) : ('19) 64 ('20) 42 ('21.1/4) 60 (2/4) 67 (3/4) 72 (10) 82 (11) 80 (12.15) 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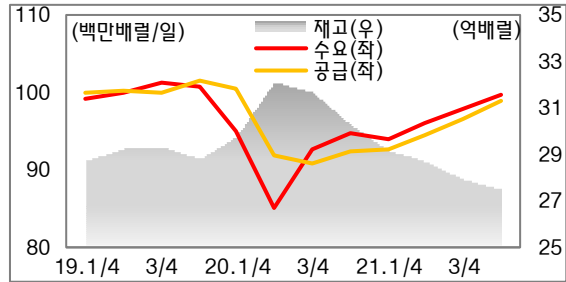
○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, 공급 회복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

두바이유 가격 추이



* 출처 : 페트로넷

글로벌 원유 수요·공급 및 재고 추이



* 출처 : EIA, OECD

② (수급여건) 수요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, 공급도 점차 증가 예상

① (수요) 주요국 일상회복 및 경제정상화 본격 추진, 국가간 이동 재개 등으로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전망

* 글로벌 항공승객수 전망(억명, IATA<'21.10>) : ('19) 45.4 ('20) 18.1 ('21^e) 22.8 ('22^e) 34.3

* 글로벌 원유수요 전망(백만배럴/일, EIA) : ('19) 100.3 ('20) 91.8 ('21^e) 96.9 ('22^e) 100.4

▪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대체수요 확대도 예상되나,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국가간 이동 재개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

* 천연가스 가격(\$/백만btu) : ('21.3)2.6 (4)2.7 (5)2.9 (6)3.3 (7)3.8 (8)4.1 (9)5.1 (10)5.5 (11)5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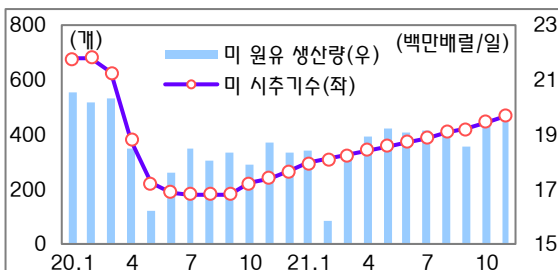
* LNG 공급부족 지속 시 일일당 50~75만배럴 수준의 원유 대체수요 발생 추정<JPM>

② (공급) 금년 8월부터 이행중인 OPEC+ 국가의 단계적 감산완화 지속, 미국 등 非OPEC+ 산유국의 생산 회복 등으로 증가 전망

* '21.7월 OPEC+ 감산규모 : 576만배럴/일 → '21.8~'22.9월까지 매월 40만배럴/일씩 감산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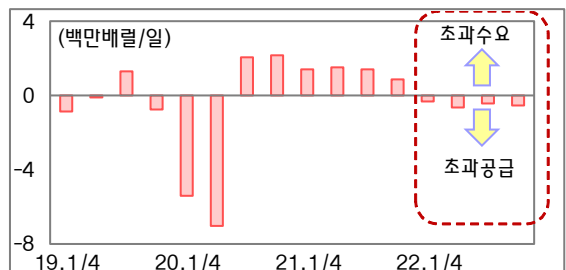
* 글로벌 원유공급 전망(백만배럴/일, EIA) : ('19) 100.4 ('20) 93.8 ('21^e) 95.6 ('22^e) 100.9

美 원유 시추기 수 및 생산량 추이



* 출처 : EIA, Baker Hughes

글로벌 원유 수급여건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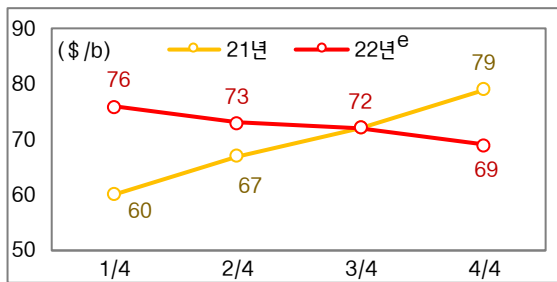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EIA ** '21.4/4분기 이후는 전망치

-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재개된 가운데, 협상이 타결될 경우 **이란의 추가 원유공급 확대** 예상
 - * 협상 타결시 이란 일일 원유생산량이 약 100만배럴 증가 전망 (Platts<'21.11>)
 - 다만, 탄소중립 정책 등 **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** 등이 **구조적으로 원유 생산 및 투자를 제약할** 가능성
 - *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, 과거 상승기와 달리 美 세일오일 생산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
 - ① 대형업체들이 주주 요구 등으로 잉여현금을 신규투자 보다 부채상환·배당 등에 활용
 - ② 바이든 정부는 신규 시추 제한, 화석연료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친환경 정책 강화
- ⇒ **내년에는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, 수요측 상방압력 지속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소폭의 공급우위 시장 형성** 전망
- * 글로벌 전망(백만배럴/일, EIA) : [수요] ('22.1/4) 99.3 (2/4) 100.1 (3/4) 101.2 (4/4) 101.3
[공급] ('22.1/4) 99.6 (2/4) 100.7 (3/4) 101.6 (4/4) 101.8

③ **(평가) 국제유가는 수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4/4분기를 정점으로 완만히 하락하겠으나, 연간으로는 금년 수준 상회**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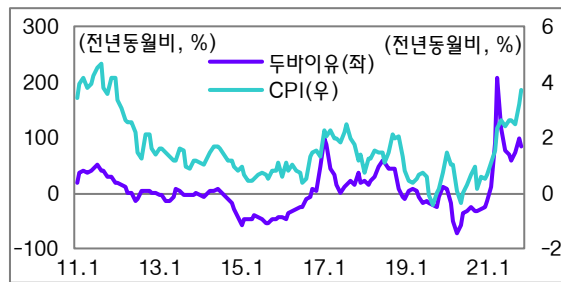
- * 국제유가(\$/b, 주요기관 평균) : ('20) 42 ('21^e) 70 (22^e) 73<+4.3%>
- 특히, **기저 영향** 등으로 **상반기까지는 전년대비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압력**으로 작용
 - * 국제유가 10% 상승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(한은<'20.8월>)
: (1차연도) 0.20% (2차연도)0.23% (3차연도)0.22% → 3년 평균 0.21% 상승

'20~'21년 국제유가 추이



* 출처 : 페트로넷 ** '21.4/4~'22.4/4 자체전망

국제유가 및 소비자물가 추이



* 출처 : 페트로넷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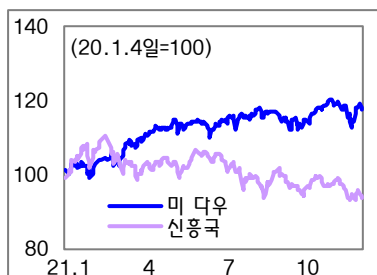
④ **(시사점) 유가 상승세 지속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 및 가계구매력 저하** 방지를 위해 **맞춤형 가격·수급 안정 노력 강화** 필요

- 유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既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(~22.4월)의 **연장** 또는 **단계적 환원** 등 탄력적 대응 추진
- 가격이 저렴한 **알뜰 주유소 확대**를 위해 **세제 혜택***을 강화하고, 일부 도심 이격거리 조건(현행 1km) **완화** 등 **제도 개선** 노력 병행
 - * '22년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 상향('22~'23년)

1 [시장지표] 리스크 요인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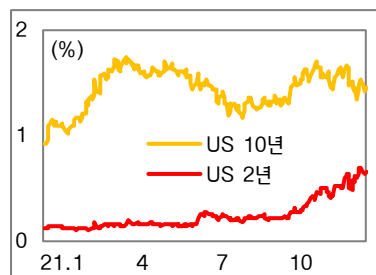
- (주가)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은 긍정적 요인이나,
 - 오미크론 확산,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, 신흥국 부채 등이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
- * '20년말 대비 상승률(21.12.14, %) : (美)+16.1 (유럽)+16.7 (日)+3.6 (中)+5.4 (韓)+4.0
- (금리)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, 인플레이션 전개 양상 등이 상승폭에 영향
- (환율) 주요국 경기여건 변화, 리스크 요인의 향방,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에 따라 변동성이 좌우될 전망

주요국 주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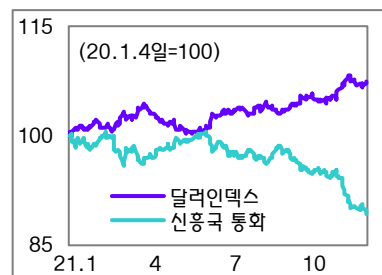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Bloomberg

주요국 금리



* 출처 : Bloomberg

주요국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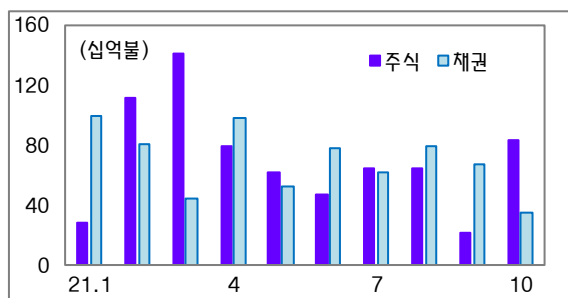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Bloomberg, 우상향시 절상

2 [자금유출입]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유출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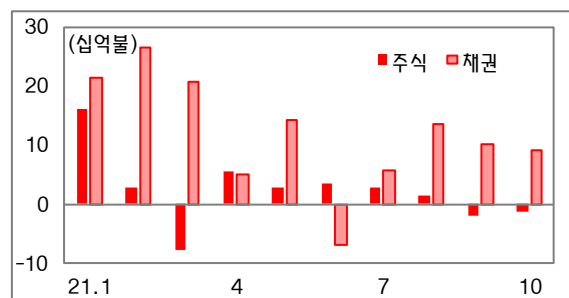
-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, 대외건전성 수준 등에 따라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유출 가능성 등 불안 소지

선진국 자금유출입 변화



* 출처 : EPFR

신흥국 자금유출입 변화



* 출처 : EPFR

2. 국내경제 전망

1

경제성장

① [민간소비] 연간 3.8% 증가 예상

① (소비여력)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

- 고용 개선 및 소득 증가, 코로나 이후 비자발적 저축 확대 등이 가계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'19) 30 → ('20) △22 → ('21^o) 35 → ('22^e) 28

* 가계 흑자율(% , 3/4분기 기준) : ('19) 27.1 → ('20) 31.1 → ('21) 32.6

- 특히, 위기 前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회복여력이 있는 대면서비스 소비 반등폭이 민간소비 전반의 회복수준에 영향

② (심리) 경제주체들의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된 가운데, 일상회복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 개선 흐름 유지 전망

* 소비자심리지수(CSI) : ('21.4)102.2 (6)110.3 (8)102.5 (9)103.8 (10)106.8 (11)10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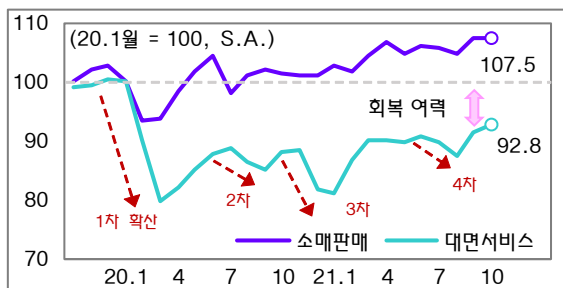
* 소비지출전망 CSI : 106.0 113.0 107.0 109.0 112.0 115.0

③ (기타)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지원, 해외여행 재개 전망 등도 긍정적 요인이나, 오미크론·확진자 전개 양상 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

* 주요 정책지원: 추가 소비 특별공제,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,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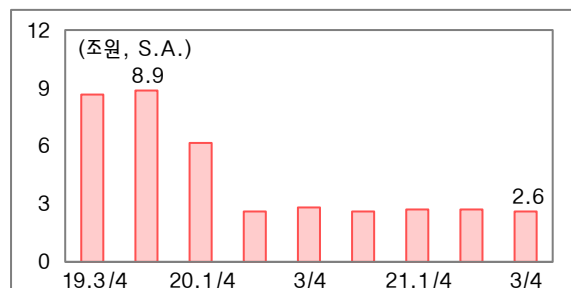
* 최근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 점증(태국·괌·이태리 등)

소매판매·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거주자 국외소비지출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⇒ ('22년 전망) 일상회복 본격화, 소득·심리 개선,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금년보다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3.8% 증가 전망
(다만,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 방역상황 전개 추이는 리스크 요인)

② [설비투자] 연간 3.0% 증가 전망

① (투자여건)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,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 유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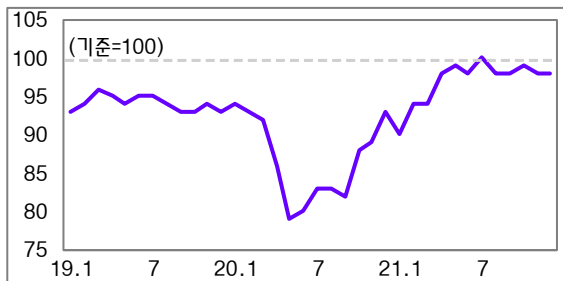
* '21→'22년 세계경제 전망(%), IMF<'21.10>) : (성장) 5.9 → 4.9 (교역) 9.7 → 6.7

-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, 디지털·친환경 전환 본격화,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지원*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* 반도체·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세제·금융 지원 강화,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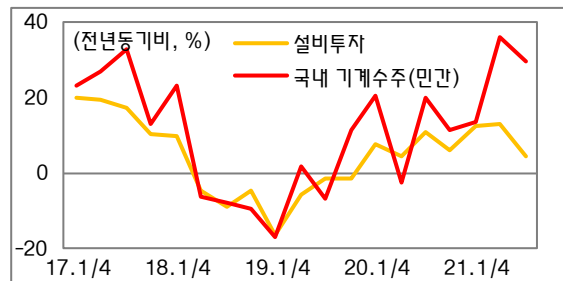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 관련 불확실성 상존

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국내 민간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통계청

② (업종별 여건)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, 신산업·서비스업 부문 전반의 고른 투자 증가 예상

- (IT 부문) 메모리 반도체 공정 업그레이드,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, OLED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 등으로 대규모 투자 지속
- (자동차) 최근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·수소차·자율주행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 예상

* 친환경차 등록대수(만대, 국토부) : ('18) 46.2 ('19) 60.1 ('20) 82.0 ('21.9) 106.3

* 현대차: 미래모빌리티 60조원 이상(~'25년), 수소생태계 조성 11.5조원(~'40년) 투자 계획

- (철강·석유화학) 탄소중립 가속화로 친환경 분야로의 사업 확장 및 저탄소 공정 구축 등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

* 친환경소재 생산,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, 온실가스 저감 설비 구축 등

⇒ ('22년 전망) 지난 2년 연속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에도 불구하고, IT·신산업·친환경 부문의 견조한 투자 수요 등으로 **3.0% 증가** 전망

* 설비투자 증가율(%) : ('18)△2.3 ('19)△6.6 ('20) 7.1 ('21^e) 8.3 ('22^e) 3.0

③ [건설투자] 연간 2.7% 증가 전망

① (주거용 건물) 주택 인허가·착공면적 등 선행지표 개선 추이를 감안할 때,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증가 전환 예상

- * 주택인허가(전년동기비, %) : ('20.3/4)20.6 (4/4) 2.4 ('21.1/4)17.7 (2/4)42.3 (3/4)21.3
주택착공면적 : ('20.3/4)50.0 (4/4)55.4 ('21.1/4)63.0 (2/4) 2.2 (3/4) 6.7
- * 주거용건물 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'18)△5.3 ('19)△9.8 ('20)△2.6 ('21.1/4~3/4)△0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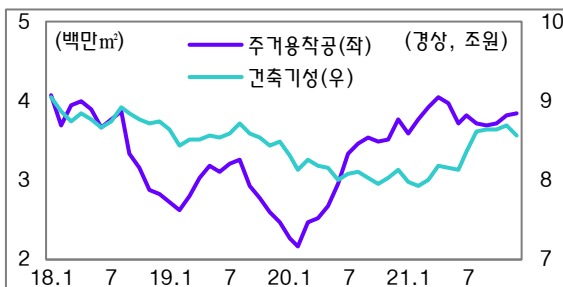
▪ 수도권 등 주택공급 대책(총 205만호)의 추진 가속화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면서 주택건설 투자 회복을 뒷받침

- * 8.4 대책 3.2만호(태릉cc 6,800호 등) 및 2.4 대책 신규택지 26만호 등의 주요 부지별 개발 구상·사업계획 수립·실시설계·착공 등을 신속히 진행 중

② (비주거용 건물) 건물수주 확대, 자영업 업황 개선, 설비투자 호조 등으로 상업용·공업용 건물 모두 완만한 증가 흐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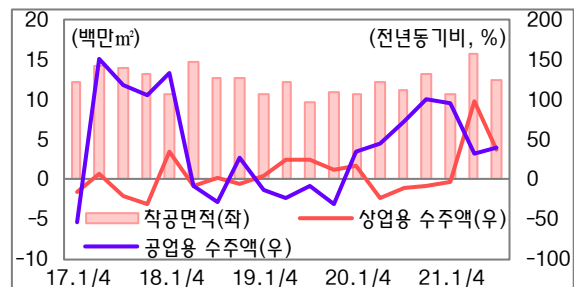
- * 수주(전년동기비, %) : [사무실·점포] ('20.4/4)△8.6 ('21.1/4)△3.1 (2/4)96.5 (3/4)42.3
[공장·창고] ('20.4/4)100.7 ('21.1/4) 94.9 (2/4)31.0 (3/4)42.0

주택착공면적 및 건설기성 추이(6MA)



* 출처 : 통계청, 국토교통부

비주거용 건물 신규착공면적



* 출처 : 국토교통부

③ (토목) 수도권 GTX 등 철도 사업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투자 사업 본격 추진

- * SOC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1) 26.5 → ('22) 28.0 <전년대비 + 1.5조원>
 -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가속화 예산(조원) : ('21) 0.4 → ('22) 0.9
 - 지역균형뉴딜(스마트시티 조성 등) 가속화 예산(조원) : ('21) 10.8 → ('22) 13.0

▪ 다만, 철강 등 건설자재 공급차질 해소 시점, 기상 여건 등이 토목건설 회복 속도에 영향 예상

⇒ ('22년 전망) 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고, 올해 부진했던 토목공사도 개선되면서 5년만에 증가 전환(2.7%) 전망

※ [참고 4] 최근 건설경기 부진 원인 및 기조 전환 가능성 평가

[참고 5] 최근 건설경기 부진 원인 및 기조 전환 가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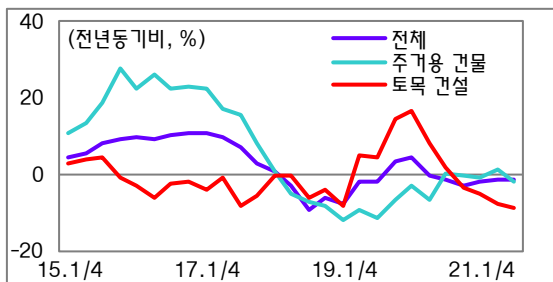
① (동향) 작년말~금년초 개선 흐름을 보이며 반등이 예상되던 건설투자는 2/4분기 이후 부진이 심화되며 성장세 제약요인으로 작용

* '21년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(%) : ['20년말] (정부) 1.0 (한은) 0.5 (KDI) 2.0
[현재] (정부)△0.9 (한은)△0.7 (KDI)△0.5

○ 비주거용 건물은 설비투자 호조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, 주택건설 회복세가 주춤하고 토목건설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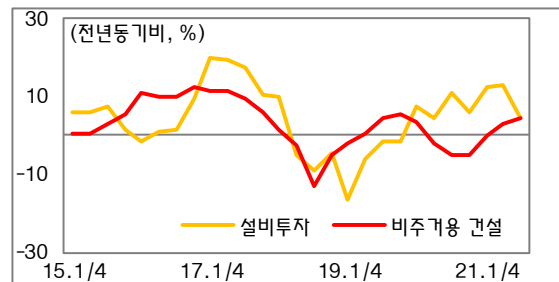
* '21.1/4~3/4 건설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전체) △1.4 (건물건설) 1.1 (토목건설)△7.2
↳ (비주거용) 2.6 (주거용)△0.5

형태별 건설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비주거용 건물건설과 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② (부진 원인) 건설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, 기상 여건 악화 등 특이 요인이 크게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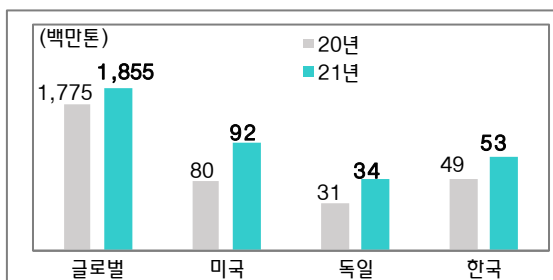
① (자재 가격상승) 글로벌 경기 회복·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한 반면, 중국의 수출억제 정책 등으로 공급은 축소

* '21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(% WSA) : (글로벌) 4.5 (미국) 15.3 (독일) 10.0 (한국) 9.1
* 중국(글로벌 철강공급의 56% 차지)은 2차례(5/8월)에 걸쳐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(부가가치세) 환급 폐지(13→0%) → 수출 물량 축소, 내수 공급 확대

▪ 국내도 연초 건설경기 회복으로 자재 수요가 증가했으나,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사 차질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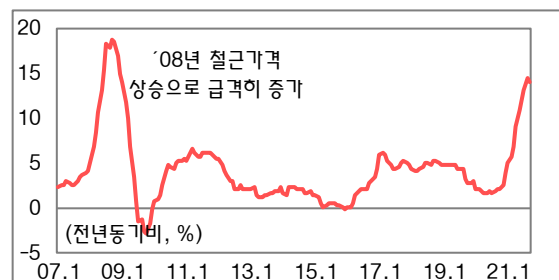
* 철근 가격(만원/톤, KoreaPDS) : ('20.4/4) 67 ('21.1/4) 75 (2/4) 103 (3/4) 113

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



* 출처 : 세계철강협회(WSA)

국내 건설공사비 추이



* 출처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② (기상여건 악화) 2/4분기·8월의 잦은 강수, 7월 폭염에 따른 건설공사 작업 지연, 조업일수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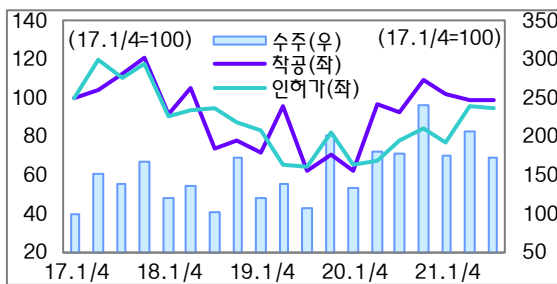
- * ① 2/4분기 월평균 강수일수 : 10.8일 (평년<최근 5년 평균> 8.7일)
- * ② 7월 폭염일수 : 8.1일 (평년 5.9일) ③ 8월 강수일수 : 16.4일 (평년 12.5일)

③ (기조전환 가능성) 내년 건설투자는 금년 특이요인이 해소될 경우, 선행지표 개선 흐름 등을 기반으로 5년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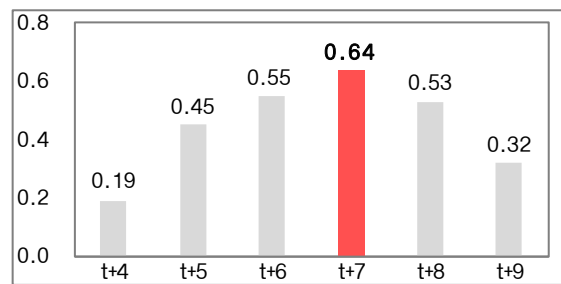
① (선행지표) 주택수주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인허가·착공면적 증가 등이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

- * 수주·인허가는 약 1년반~2년 건설기성에 선행, 착공은 약 30개월간 건설기성에 순차 반영

주택건설 선행지표



건설수주-건설기성간 시차상관계수



* 출처: 통계청

* 출처: 자체추정('12.1/4~'21.3/4분기 실적 활용)

② (자재수급) 중국의 철강산업 통제가 지속되었으나,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으로 철근 가격 상승세 진정 전망

- * 中 정부는 '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, 2060 탄소중립 추진 등을 위해 철강 감산기조 지속 중
- * '21→'22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(% , 세계철강협회) : (글로벌) 4.5→2.2 (美) 15.3→5.7

▪ 최근 국내 철근 수입량은 대만·일본산 등을 중심으로 증가

- * 철근 수입물량(천톤) : ('21.1/4) 206 (2/4) 230 (3/4) 295 (10) 87 (11) 83
- '20→'21년 원산지별 비중(% 1~11월 기준) : (中) 56.6→41.9 (日) 35.9→41.0 (대만) 7.3→16.7

③ (정책요인) 도로·철도사업 중심의 SOC 예산 증액, 주택공급 확대 정책 가속 추진 등도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

- * '21→'22년 SOC 예산(조원) : (전체) 26.5 → 28.0 (도로건설) 5.3 → 5.7 (철도건설) 5.0 → 5.2

④ (시사점)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의 일시적 제약요인들이 완화되면서 회복세가 재개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수급상황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, 주택공급 정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
- 아울러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대규모 도로·철도사업, 도로·물류 인프라 스마트화 등 SOC 예산도 신속 집행 필요

4 [지식재산생산물투자] 연간 3.8% 증가 전망

① (R&D투자) 정부의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 집중 지원,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지속 전망

- 내년 R&D 예산은 한국판 뉴딜, BIG3 산업, 소재·부품·장비, 감염병 연구, 우주항공 등 10대 분야 중심으로 대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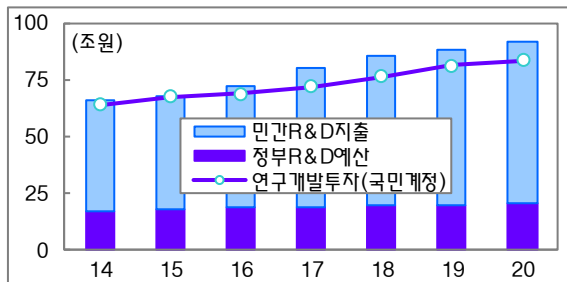
* R&D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1)27.4 → ('22)29.8 <+2.4조원>

- 민간부문도 기업실적 호조, 신성장 기술 세제혜택 강화* 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&D 투자 확대 예상

* ①반도체·배터리·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투자세액공제를 상향(~'24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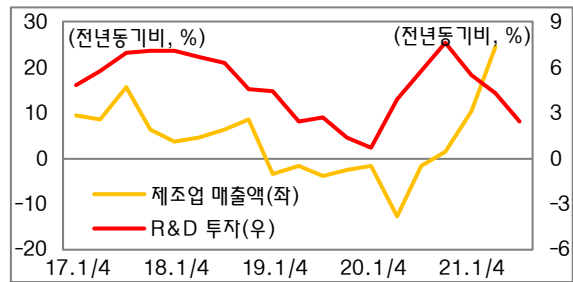
②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확대(탄소중립·바이오 등) + 적용기한 연장(~'24년)

정부·민간 R&D 지출 및 R&D 투자



*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

R&D 투자 및 제조업 매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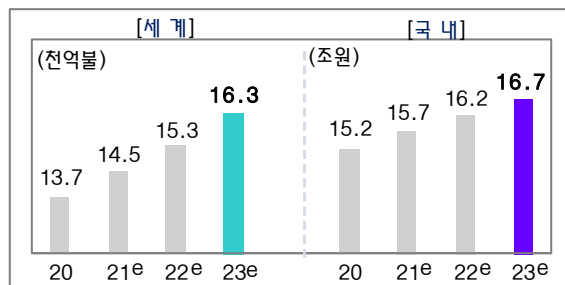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한국은행, 기업경영분석

② (기타 지식재산생산물) IT 기반 비대면 활동 확대,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를 뒷받침

- 정부의 SW 인재양성(41.3만명+α, ~25년), 클라우드 플랫폼·서비스 개발 지원(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*)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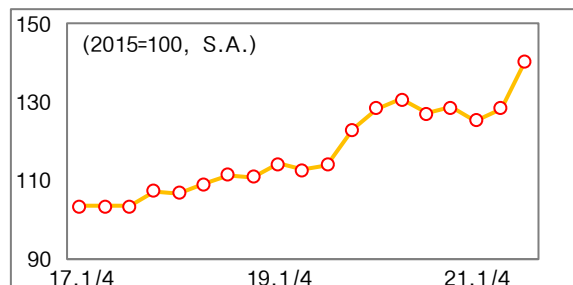
* 제조·물류·헬스케어·교육·비대면 복지 등 5개 산업 분야 집중 지원

세계·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전망



* 출처 :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

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



* 출처 : 통계청

⇒ ('22년 전망)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(3.8%) 지속 전망

5 [수출(통관) 연간 2.0% / (수입(통관) 연간 2.5% 증가 전망

① (수출)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하에 증가세 유지(+2.0%) 전망 < 다만, 금년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 >

* 글로벌 교역 증가율(% , WTO) : ('15~'19 평균) 2.3 ('20)△5.3 ('21^e) 10.8 ('22^e) 4.7

▪ 반도체·자동차·신산업 부문 등이 수출 증가세 견인 예상

①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헬스 등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 지속

*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('21→'22, % , WSTS<'21.11>) : (전체) 25.6→8.8 (메모리) 34.6→8.5

* 수출 증가율(% , '20년→'21.1~11월) : (이차전지) 1.3 → 16.8 (바이오헬스) 55.9 → 18.5

②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차질 완화,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* 차부품 제조업체 가동률(인도네시아, 8월→9월말, %) : (르네사스)40→80 (NXP)60→100

* 글로벌 친환경차 점유율(판매대수 기준, %, IEA) : ('20) 4.6 → ('25^e) 18.9

- 우리 친환경차 수출(만대) : ('15)3.9 ('18)19.6 ('19)25.9 ('20)27.1 ('21.1~11)36.2

③ 석유화학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수요 둔화가 예상되며, 선박의 경우 '19~'20년 수주 감소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

* 선박 수주량(만CGT, 클락슨) : ('18) 1,354 ('19) 995 ('20) 866 ('21.1~11) 1,6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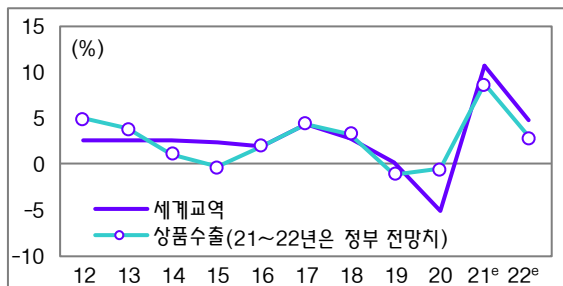
▪ 지역별로는 미국·중국 뿐 아니라,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아세안 5개국 등 쏠지역 고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* '21→'22년 성장 전망(% , IMF<'21.10월>)

: (글로벌)5.9 → 4.9 (中) 8.0 → 5.6 (美)6.0 → 5.2 (ASEAN5)2.9 → 5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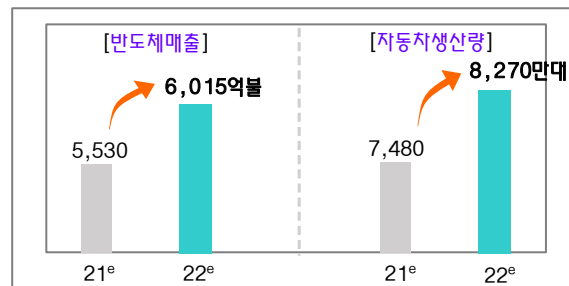
▪ 다만, 오미크론 확산, 공급망 차질 장기화,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 등이 수출 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

세계 교역 및 우리 상품수출 추이



* 출처 : WTO, 한국은행

글로벌 반도체매출 및 자동차생산량



* 출처 : WSTS, IHS Markit

② (수입) 내수 회복세 확대,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·중간재 등을 중심으로 '22년 중 2.5% 증가 예상

- * 수입유발계수(한은, '19년) : (민간소비) 0.27 (민간투자) 0.28 (수출) 0.36
- * 수입 증가율(%,'20→'21.1~11월) : (소비재)△1.1 → 14.5 (중간재)△6.1 → 32.3

▪ 원자재 수입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- * 국제유가(\$/b, 주요기관 평균) : ('20) 42 ('21^e)70 ('22^e) 73<+4.3%>
- * 원자재 수입증가율(%,'20→'21.1~11월) : ('20)△18.8 ('21.1~11월) 46.1

③ (경상수지) 흑자규모는 800억불 수준 전망

▪ (상품수지) 수출 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올해 보다 축소 예상 ('21년 770 → '22년 750억불)

- * 상품수지(억불) : ('18) 1,101 ('19) 798 ('20) 819 ('21.1~10) 646

▪ (상품外 수지) 소득수지 흑자 감소,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 등으로 전체 흑자규모는 축소 예상 ('21년 140 → '22년 50억불)

① 특히, 코로나로 크게 축소되었던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글로벌 방역조치 완화시 해외여행 재개로 확대될 전망

- * 여행수지(억불) : ('18)△165.7 ('19)△118.7 ('20)△56.3 ('21.1~10)△50.7
- * 백신접종시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점증(이태리, 괌, 베트남, 태국, 싱가포르 등)
- * 글로벌 항공승객수(억명, IATA<'21.10>) : ('19) 45.4 ('20) 18.1 ('21^e) 22.8 ('22^e) 34.3

② 소득수지는 금년 크게 증가했던 배당수입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, ODA 등 이전지급 확대 등으로 흑자폭 축소 예상

- * ODA 예산규모(조원) : ('17) 2.7 ('18) 3.0 ('19) 3.1 ('20) 3.4 ('21) 3.7 ('22) 3.9

경상수지 전망

| | 2021년 ^e | 2022년 ^e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▶ 경상수지 규모 | 910억불 | 800억불 |
| ▪ 상품수지 | 770억불 | 750억불 |
| - 수출(통관) | 25.5% | 2.0% |
| - 수입(통관) | 31.0% | 2.5% |
| ▪ 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수지 | 140억불 | 50억불 |

6 [경제성장] 실질GDP 3.1% 성장 전망 (경상GDP 4.6% 성장)

【 실질성장률 】

○ 내년 우리 경제는 **정상 성장경로로의 회복 흐름**을 이어가면서 **연간 3.1% 성장** 전망

- 양호한 글로벌 경기·교역여건 지속,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,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

* 세계경제 전망(%,'21→'22년, IMF) : <성장> 5.9 → 4.9 <교역> 9.7 → 6.7

- 수출·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,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하면서 **소부분 고른 성장** 예상

* 증가율(%) : ['21년^e] (수출<통관>)25.5 (설비투자) 8.3 (민간소비) 3.5 (건설투자) △0.9
 ['22년^e] (수출<통관>) 2.0 (설비투자) 3.0 (민간소비) 3.8 (건설투자) 2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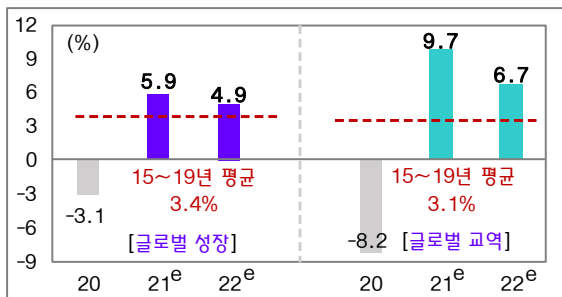
- 다만, **오미크론 확산·확진자 증가, 공급망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**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

* 오미크론 77개국 확산(12.15일) → 세계경제 성장 둔화·물가 상승 위협(무디스·피치 등)

* 공급망 차질 영향 및 인플레이션이 '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(무디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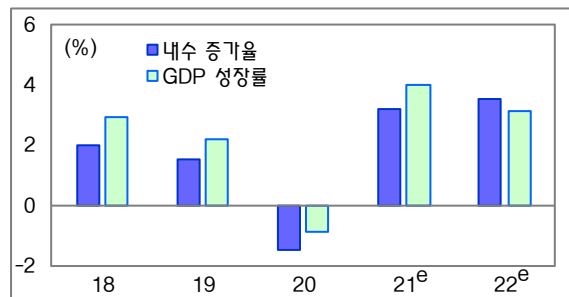
* Fed(12월 FOMC): 1월부터 테이퍼링 가속 결정 → 가계·한계기업 부담 증가 등 영향 예상

글로벌 성장률 및 교역 증가율



* 출처 : IMF('20.10월 전망)

내수 증가율 및 GDP 성장률



* 출처 : 한국은행 ** '21~'22년은 정부전망

【 경상성장률 】

○ '22년 경상 GDP는 실질성장률이 올해 보다 낮아지고(4.0→3.1%), 디플레이터 상승세도 완만(2.2→1.5%)해지면서 **4.6% 성장** 전망

- 디플레이터의 경우 소비자·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, 반도체 중심 수출가격 조정 등으로 **1.5% 상승** 예상

* 반도체 가격 상승률 전망(% , Dram Exchange<'21.11>) : ('21^e) +19.9 → ('22^e)△17.3

※ [참고 5] 경상성장률 상승 배경 및 평가

[참고 6] 경상성장을 상승 배경과 전망 및 평가

① (동향) 금년에는 '17년 이후 둔화되던 경상성장률이 큰 폭 반등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* 경상성장률(전년동기비, %) | ('17)5.5 | ('18)3.4 | ('19)1.4 | ('20)0.4 | ('21.1/4)4.6 | (2/4)7.6 | (3/4)6.4 |
| - 실질성장률(%) | 3.2 | 2.9 | 2.2 | △0.9 | 1.9 | 6.0 | 4.0 |
| - 디플레이터(%) | 2.2 | 0.5 | △0.8 | 1.3 | 2.6 | 1.6 | 2.3 |

※ '18~'20년 경상성장률(= 실질성장률 + GDP 디플레이터) 둔화 원인

▶ ('18~'19년) **교역조건 악화***에 따른 **GDP 디플레이터 하락**

↳ <'18년 국제유가 상승, '19년 글로벌 반도체 가격 하락>

* $GDP\ Deflator = \frac{\text{내수(소비 + 투자) Def.} + \text{교역조건(수출 Def. - 수입 Def.)}}{\text{내수·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포괄, 국내요인 외 교역조건에 따라 변동}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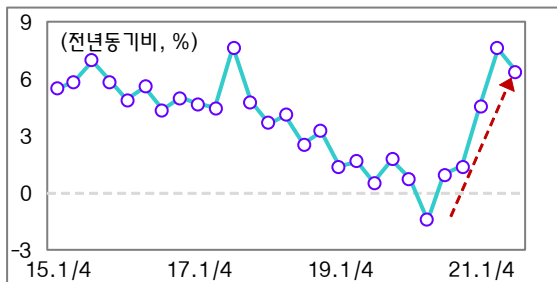
✓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 : ('17) 53.2<+28.4%> ('18) 69.7<+31.0%> ('19) 63.5<△8.8%>

✓ D램 가격(8Gb 고정가, \$/개) : ('17) 6.6<+82.4%> ('18) 7.9<+19.1%> ('19) 3.7<△53.5%>

▶ ('20년) **코로나 충격**에 따른 **실질성장률(△0.9%) 하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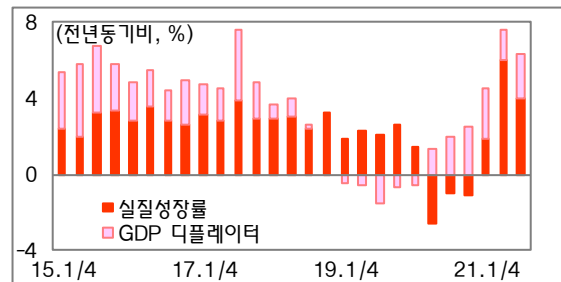
② (상승 배경) 실질성장률 반등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에 기인

경상성장률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실질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① (실질성장률)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**빠르게 회복**되면서 전년동기대비로 **높은 성장세** 지속 <'21.1/4~3/4 평균 4.0%>

② (GDP 디플레이터) 내수·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**오름세 확대** <'21.1/4~3/4 평균 2.2%>

▪ 내수부문 : 경기 회복,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·투자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동반 확대

* 특히, 건설투자 디플레이터가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큰 폭으로 상승
- 철근가격(전년동기비, %) : ('20.3/4)△1.8 (4/4) 5.6 ('21.1/4) 11.9 (2/4) 38.2 (3/4) 58.9

내수 부문별 디플레이터 상승률(전년동기대비, %)

| | '18 | '19 | '20 | 1/4 | 2/4 | 3/4 | 4/4 | '21.1/4 | 2/4 | 3/4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|
| ▶ 내수 Deflator | 1.6 | 1.3 | 1.1 | 1.4 | 0.7 | 0.9 | 1.3 | 1.4 | 2.7 | 3.3 |
| - 소비 Def. | 1.5 | 0.8 | 1.0 | 1.4 | 0.6 | 1.2 | 1.0 | 1.5 | 2.4 | 2.1 |
| - 투자 Def. | 2.2 | 3.4 | 1.1 | 1.3 | 1.2 | 0.2 | 1.7 | 1.3 | 3.4 | 5.0 |
| <건설투자> | 3.1 | 2.7 | 1.0 | 1.3 | 0.8 | 1.0 | 1.2 | 3.2 | 7.0 | 10.0 |

▪ 수출 :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디플레이터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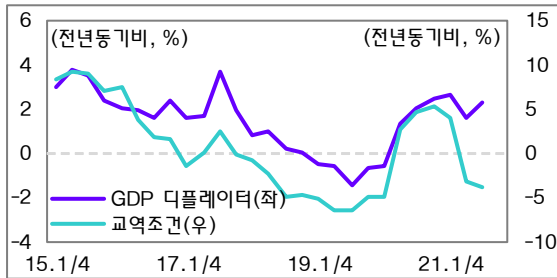
* D램 가격(8Gb 고정가, \$/개) : ('21.1/4) 3.0<+3.9%> (2/4) 3.8<+15.0%> (3/4) 4.1<+31.0%>

▪ 수입 :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 디플레이터도 큰 폭 반등
→ 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을 제약

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 : ('21.1/4) 60.3<+19.5%> (2/4) 67.1<+118.2%> (3/4) 71.7<+67.2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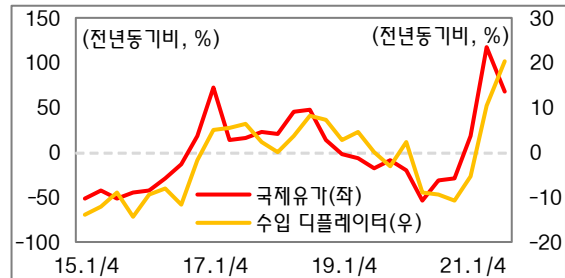
[국제유가는 1~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수입 디플레이터에 반영]

GDP 디플레이터 및 교역조건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국제유가·수입 디플레이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페트로넷

③ (전망) 경상성장률은 금년에 큰 폭 상승(6.2%)하고, 내년에는 다소 둔화(4.6%)되겠으나 위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 지속 전망

* 경상성장률(%) : ('15) 6.1 ('16) 5.0 ('17) 5.5 ('18) 3.4 ('19) 1.4 ('20) 0.4 ('21^e) 6.2 ('22^e) 4.6

* 주요기관 경상성장률 전망(%, '21→'22년) : (IMF) 7.0 → 5.3 (OECD) 6.0 → 4.4

○ 내년의 경우 실질GDP가 3% 수준('21년 4.0% → '22년 3.1%) 성장하고,

▪ GDP 디플레이터도 CPI 상승세 둔화, 공급망 차질 완화, 반도체 가격 조정 등으로 상승폭 축소('21년 2.2% → '22년 1.5%) 예상

* '21→'22년 소비자물가 전망(%) : (정부) 2.4 → 2.2 (한은) 2.3 → 2.0 (KDI) 2.3 → 1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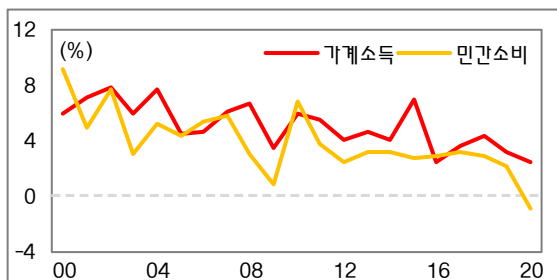
* 반도체 가격 상승률 전망(%, Dram Exchange) : ('21) +19.9 ('22) △17.3

④ (평가) 경상성장률 상승으로 '21년 1인당 GNI가 3만 5천불 수준으로 증가하고, 가계·기업소득 확대로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 기대

※ 금년 1인당 GNI 3년만에 증가 전환되면서 **3만 5천불 수준**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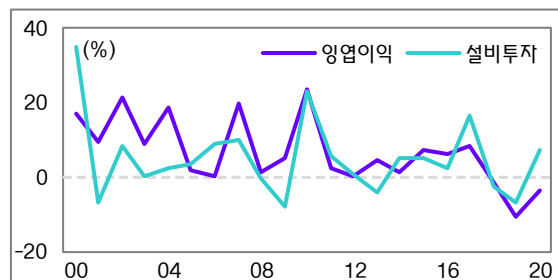
- 1인당 GNI(\$) : ('16) 29,394 ('17) 31,734 ('18) 33,564 ('19) 32,204 ('20) 31,881

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기업 영업잉여 및 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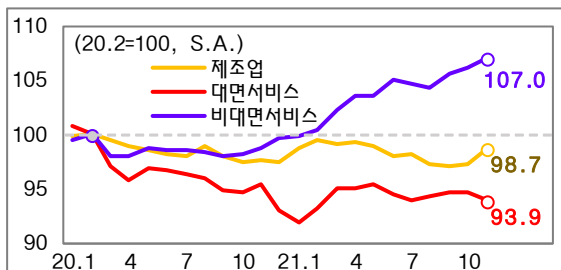
① (수요) 일상 회복·일자리 지원정책 효과 등으로 개선 흐름 지속

-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진적 일상회복과 함께 노동수요 증가 예상
 - *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): (음식숙박)**19.0** (예술·스포츠·여가)**14.5** (제조업)7.6 (건설업)10.8
-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·고령화·맞벌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돌봄·보건·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
 - * 일자리 예산(조원) : ('20) 25.5 → ('21) 30.1 → ('22) 31.1 <전년대비 +1.0조원>
- 다만, 자동화·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용직·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 등의 구조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

② (공급)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예상되나,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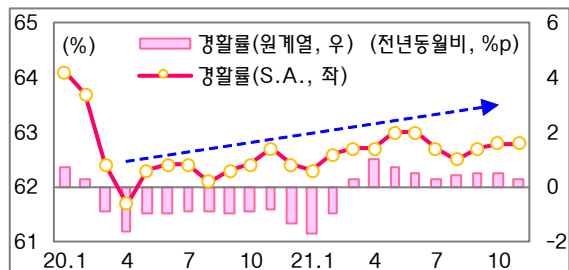
- 일상회복·경제 정상화에 따라 구직활동이 지속 확대될 전망
- 다만,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심화('21년^e △34.9 → '22년^e △35.5만명)는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산업별 고용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※ [참고 6] 고용의 구조적 제약요인 점검 및 시사점

③ ('22년 전망) 취업자 28만명 수준 증가 전망

- '22년 취업자수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,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**28만명 내외 증가** 예상
 - 다만, 코로나 전개 양상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, 노동시장 이력효과 최소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개선 노력 필요
- 고용률(15~64세)은 '21년(66.5%) 보다 **0.4%p** 상승한 **66.9%**, 실업률은 '21년(3.6%)과 동일한 **3.6%** 전망

[참고 기 고용의 구조적 제약요인 점검 및 시사점

① **(배경)** 금년 고용은 작년 충격에서 벗어나 큰 폭 반등하였고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, 구조적 제약요인도 상존

- * 취업자 증가(만명, 정부 전망) : ('15~'19년 평균) 24.5 ('20)△22 ('21^e) 35 ('22^e) 28
- * '21→'22년 고용 전망(만명) : (한은) 35 → 25 (KDI) 36 → 30 (LG연) 36 → 28

○ 특히, 인구·산업구조 변화, 코로나 충격에 따른 실업 장기화 등이 내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 예상

② **(인구구조 변화)**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감소 및 고령층 인구 증가는 고용의 양적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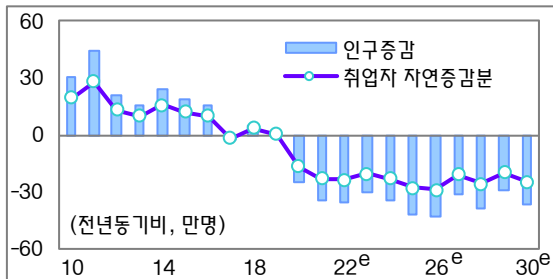
○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고 고용률이 높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위축되고 자연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효과

- * 인구 증감(만명) : [15~64세] ('10~'16 평균) 24 ('17)△2 ('18) 5 ('19) 0 ('20)△25 ('21)△35
- * t년도 취업자수 자연 증감 효과 = (t년도 인구 증감) × (t-1년 고용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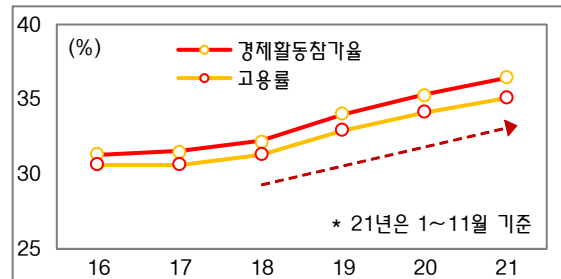
▪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·고용률 확대 등이 노동공급 충격을 일부 완충하고 있으나, 충분히 만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

- * 경제활동참가율/고용률(% , '20년 기준) : (15~64세) 68.6/65.9 (65세 이상) 35.3/34.1

15~64세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자연증감분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·고용률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 ** 자연증감분은 자체추정



* 출처 : 통계청 * 21년은 1~11월 기준

② **(산업구조 변화)**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·그린화 등 구조 전환 과정에서 노동전환 수요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확대 예상

○ **(디지털화)** AI·빅데이터·IT 분야 등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나, 자동화·온라인화로 대면서비스·제조업 비숙련 일자리는 감소

- * 일자리 증가 예상 업종 : 전기전자, 정보통신, 전문과학서비스, 바이오헬스 등
- * 일자리 감소 예상 업종 : 금속제품·자동차 제도, 도소매, 숙박·음식, 금융·보험 등

▪ 특히,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 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, 기술도입 과정에서 비용 증가로 인해 고용이 둔화될 가능성

- * 사업체 ICT 활용 비중(%):(종사자 10~49인) 65.2 (50~249인) 75.1 (250인 이상) 96.6

- **(탄소중립 추진) 재생에너지**(태양광 등), **저탄소 신산업**(이차전지·바이오 등), **기후산업**(CCUS 등)을 중심으로 **신규 일자리 창출**
- **석탄화력발전·내연기관 자동차는 계획된 사업 축소·전환 목표 이행 과정에서 노동전환 수요 발생 예상**
 - * 석탄화력발전: '34년까지 전체 58기 중 28기 폐지(24개 LNG 전환)
 - * 자동차: '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수소·전기차 비중 33.3%(60만대) 달성 목표('20년 2.8%/5.2만대)

※ [참고] 주요국 정책대응

- ▶ (美) 석탄산업 근로자·가족 지원제도 법제화, 피해지역 지원 TF 구성 등
- ▶ (獨)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에 따른 기업·근로자·지역 지원 규정 마련, 20년간 43억유로 기업보상 + 400억유로 근로자·지역 지원, 디지털 기술 투자 및 직원교육 등에 2억유로 투자 등
- ▶ (싱가폴) 무인화 고위험군 산업을 지정(23개)하여 직원 재교육 등 비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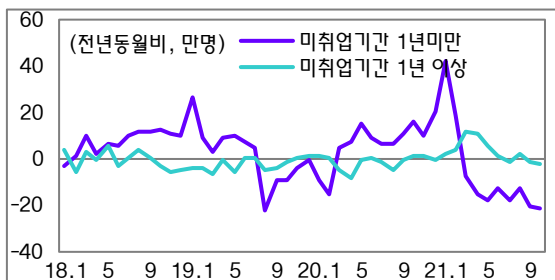
③ **(코로나 이력현상) 코로나 충격에 따른 일시적 실업자가 위기 이후 고용시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**

* '21.4월 이후 실업자 감소 추세이나, 주로 미취업기간 1년 미만 실업자 감소에 기인

○ 특히, **코로나 졸업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낙인효과·인적자본 축적기회 상실 등으로 이력현상 심화 우려**

* '21년 졸업자는 과거 평균('16~'18년)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였으나, '20년 졸업자는 졸업 첫해 뿐 아니라 다음해인 올해까지 과거 평균 고용률 수준 하회

미취업기간별 실업자수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 원자료 분석

'20년~'21년 졸업생 고용률 비교

| | 졸업 첫해 | 졸업 다음해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'16~'18 졸업자 | 53.6 | 68.9 |
| '20년 졸업자 <증감, %p> | 47.6 <△6.0> | 62.2 <△6.7> |
| '21년 졸업자 <증감, %p> | 54.8 <+1.2> | - |

* 출처 : 통계청 원자료 분석

④ **(시사점)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구·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최소화 및 코로나 이력현상 방지 노력 필요**

- 여성·청년·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산업간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**직업훈련·평생교육 강화**
- 아울러, 코로나 세대의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**취업역량 강화, 구인-구직 연계, 일경험 기회 제공** 등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

◇ '22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.2% 상승 전망

① (공급측면)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,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겠지만,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상존

- 국제유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 증가 등으로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
* 국제유가(\$/b, 주요기관 평균) : ('20) 42 ('21°) 70 ('22°) 73 <+4.3%>

* OPEC+ 감산 축소 계획 : '22.3/4분기까지 매월 40만배럴/일씩 감산 완화

-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의 경우, 금년 양호한 작황 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내년 가격 안정화 기대

* '21년 생산량 전망(천톤) : (배)185<전년비 +39.3%> (사과)478<+13.2%>

(쌀)3,880<+10.7%> (겨울양배추)171<+3.3%>

- 다만,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,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·외식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

② (수요측면) 내수경기 회복세 확대와 함께 상방압력 증대 예상

- 특히, 대면서비스 소비의 빠른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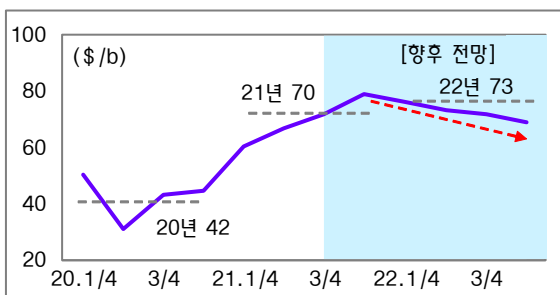
* 개인서비스 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0)1.2 ('21.1/4)1.6 (2/4)2.4 (3/4)2.7 (10)2.7 (11)3.0

③ (정책요인) 유류세 인하(~'22.4월) 포함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,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 등은 물가 오름세 완화 요인으로 작용

* 휘발유가격(원/L) : (10.30) 1,781 (11.11) 1,810 (11.12<인하개시>) 1,767 (12.15)1,64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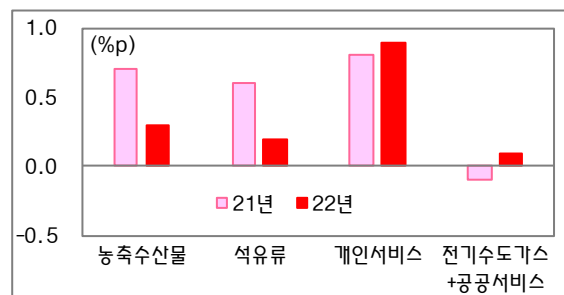
* 근골격계 질환 검사·치료 급여화, 치과분야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

국제유가 예상경로



* 출처 : 페트로넷, 전망은 자체 추정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* 출처 : 자체 추정

Ⅲ. 종합 평가

◇ '22년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으나, 불확실성 상존

○ 내년 성장·고용은 기저 영향 등으로 올해 보다는 낮아지지만, 위기 극복을 넘어 **정상궤도로 복귀·도약하는 과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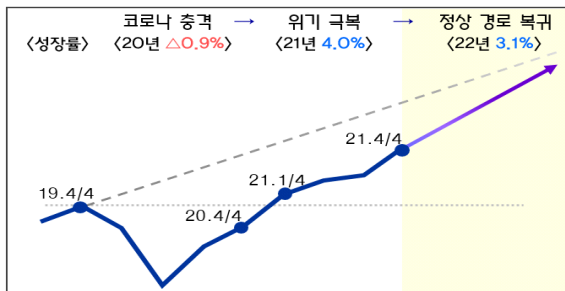
* '22년 성장률(3.1%) 및 취업자 증가(+28만명)는 평년('15~'19년 평균) 수준 상회
 ['15~'19년 평균 : 성장률 2.8% / 취업자 증가 +24.5만명]

▪ 내수·투자·수출의 고른 증가를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'22년까지의 회복 속도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

▪ 다만, 대내외 불확실성*이 공존하며, 취약계층 피해 누적, 생활물가 상승, 新양극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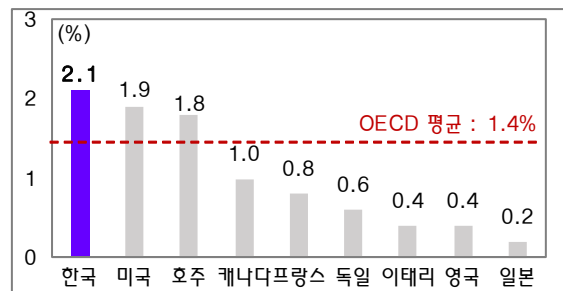
* 오미كرون 확산, 공급망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, 가계·자영업자 부채 증가 등

코로나 위기 이후 성장경로



* 출처 : 한국은행, 자체전망

G20 선진국 '20~'22년 평균 성장률



* 출처 : OECD('21.12월 전망), 한국은 정부 전망치

○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화·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

* (美) 첨단산업 등에 2천억불 투자(~'26년) / (EU) 디지털·탄소중립 등에 955억 유로 투자(~'27년)

◇ '22년은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

○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경제 정상궤도 도약과 민생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적극 뒷받침

▪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·물가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에도 만전

○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경로를 높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 공고화에도 보다 속도 낼 필요

▪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보강하고, 탄소중립·인구·지역경제 등 미래 도전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 병행

2021~2022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| | '20년 | '21년 | | | | '22년 전망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1/4 | 2/4 | 3/4 | 연간 ^e | |
| 전망 전제 | | | | | | |
| 세계경제(PPP) ¹⁾ | △3.1 | - | - | - | 5.9 | 4.9 |
| Dubai 유가(\$/bbl) | 42 | 60 | 67 | 72 | 70 | 73 |
| 실질 GDP | △0.9 | 1.9 | 6.0 | 4.0 | 4.0 | 3.1 |
| 민간소비 | △5.0 | 1.2 | 3.7 | 3.3 | 3.5 | 3.8 |
| 설비투자 | 7.1 | 12.4 | 12.8 | 4.2 | 8.3 | 3.0 |
| 건설투자 | △0.4 | △1.8 | △1.2 | △1.2 | △0.9 | 2.7 |
| 지식재산생산물투자 | 4.0 | 4.2 | 3.9 | 3.9 | 3.9 | 3.8 |
| 경상 GDP | 0.4 | 4.6 | 7.6 | 6.4 | 6.2 | 4.6 |
| 취업자 증감(만명) | △22 | △38.0 | 61.8 | 57.7 | 35 | 28 |
| 고용률(15~64세, %) | 65.9 | 64.9 | 66.7 | 67.1 | 66.5 | 66.9 |
| 소비자물가 | 0.5 | 1.1 | 2.5 | 2.6 | 2.4 ²⁾ | 2.2 |
| 경상수지(억달러) | 753 | 228 | 215 | 258 | 910 | 800 |
| 상품수지(억달러) | 819 | 196 | 185 | 208 | 770 | 750 |
| 수출(통관) | △5.5 | 12.5 | 42.1 | 26.5 | 25.5 | 2.0 |
| 수입(통관) | △7.1 | 12.3 | 37.6 | 37.5 | 31.0 | 2.5 |
| 서비스·분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 | △67 | 32 | 30 | 50 | 140 | 50 |

1) IMF World Economic Outlook('21.10월)

2) 현행 소비자물가(2015=100) 기준 전망치

올해 12월 및 연간 실적(12.31일)은 기준년 개편 후 신계열(2020=100) 기준 공표 예정

2022년 경제전망 담당자

| 분 야 | 담 당 자 [사 무 관] | 연 락 처 (044-215~)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G D P · 총 괄 | 중 합 정 책 과 | 신 동 현 윤 현 곤 | 2713 2714 |
| | 경 제 분 석 과 | 김 태 연 (서 기 관) | 2731 |
| 민 간 소 비 | 경 제 분 석 과 | 이 종 민 | 2732 |
| 수 출 입 | 경 제 분 석 과 | 김 태 경 | 2734 |
| 세 계 경 제 | 경 제 분 석 과 | 송 지 현 | 2733 |
| 투 자 | 경 제 분 석 과 | 남 기 인 | 2736 |
| 재 정 | 거 시 정 책 과 | 김 금 비 | 2832 |
| 고 용 | 정 책 기 획 과 | 김 태 순 | 2812 |
| 물 가 | 물 가 정 책 과 | 이 상 홍 | 2771 |
| 가 계 부 채 금 융 시 장 | 자 금 시 장 과 | 심 승 미 | 2755 |
| | | 이 유 진 | 2754 |
| 국 제 금 융 시 장 | 국 제 금 융 과 | 이 용 준 | 4712 |
| 외 환 시 장 | 외 화 자 금 과 | 이 상 민 | 4733 |